

원각사종(圓覺寺鐘)에서 보신각종(普信閣鐘)으로 -조선시대 탈불교화의 일례-*

남동신(南東信)

I. 머리말

II. 조선 초 왕명으로 조성한 조종(朝鍾)과 범종(梵鐘)

1. 태조~세조대의 조종 4구
2. 세조대의 범종 3구

III. 원각사종[범종]에서 ‘불교지우기’

1. 원각사종의 구성 요소
2. 불교적 상징과 문자의 삭제
3. 연산군대 ‘불교지우기’의 이념, 벽불(闕佛)

IV. 범종[부처의 소리]에서 조종[임금의 소리]으로

1. 중종대 납대문으로의 이전과 침묵 당한 부처의 소리
2. 선조~광해군대 임금의 소리로의 재탄생

V. 맺음말

* 이 연구는 2022년도 서울대학교 미래기초학문분야 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주요 논저: 「天宮으로서의 石窟庵」, 『미술사와 시각문화』 13(2014); 「세조의 원각사13층석탑 건립과 그 의미체계」, 『美術資料』 101(2022); 「원효의 발견」(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등

보신각종은 호불군주 세조가 즉위 10년을 맞이하여 한양 도성 한복판에 원각사를 건립하면서 그곳에 봉안하고자 1468년에 조성한 범종(梵鐘)이었다. 현재 보신각종은 타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손상되었는데, 그것은 원각사종에서 보신각종으로의 역사적 변천을 잘 보여준다. 필자는 본고에서 보신각종에 가해진 인위적 훼손에 주목하여, 누가, 언제, 왜 훼손하였으며, 그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제1장에서는 관련되는 선행 연구성과를 검토하여 필자의 문제의식과 연구 관점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가장 주된 논점인 보신각종과 원각사종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학설사를 검토하여, ‘보신각종=원각사종’의 관점에서 필자가 논의를 전개함을 밝혔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세조가 원각사종을 조성하게 된 배경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선 초에 왕명으로 조성한 종들을 조종(朝鍾)과 범종(梵鐘)으로 나눈 다음, 조종 4구—태조의 종루종, 태종의 돈화문종, 세종의 광화문종, 세조의 사정전종—와, 범종 3구—세조의 용문사종, 홍천사종(또는 정릉사종) 및 원각사종—를 만든 시기순으로 정리하였다. 요컨대, 세조는 만년에 원각사종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한 마음으로 임금과 부처가 소리로써 백성을 교화하겠다는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보신각종에 보이는 인위적 훼손의 흔적을 면밀하게 고찰하였다. 먼저 보신각종의 현상을 관찰한 다음, 이를 보신각종을 전후하여 조성한 홍천사종(1462) 및 봉선사종(1469)과 비교하여, 범종의 구성 요소 가운데 무엇이 얼마나 훼손되었는가를 추적하였다. 훼손된 구성 요소는 다시 불교적 요소—견대(肩帶)의 복련(伏蓮), 보살입상 4구, 최항(崔恒)이 지은 종명(鐘銘)—와, 비(非)불교적 요소—주종 관계자 가운데 도제조(都提調) 명단—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원각사종에서 불교 문자와 상징이 지워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불교지우기’라 명명하고 그 이념적 요인으로 동시대 유자(儒者)들의 맹렬한 벽불론(闢佛論)을 주목하였으며, 후자는 정치적 요인으로 연산군의 갑자사화를 지목하였다. 그리고 보신각종의 인위적 훼손에는 이념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시기를 갑자사화(1504년)부터 연산군 퇴위까지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범종으로서의 원각사종이 조종으로서의 보신각종으로 바뀌는 과정을 추적하고, 그 변신의 의미를 종소리의 상징성에 초점을 맞추어 음미하였다. 1468년 최종적으로 완성된 원각사종은 1504년까지 36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만 예불(禮佛)을 위한 범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504년 원각사가 폐사되면서 그 역할도 끝났다. 1536년에는 원각사지에서 남대문으로 옮겨졌으며, 1594년 11월 다시 타종할 때까지 전후 90년 동안 침묵 속에 방치되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의 병화로 종루종이 파괴되면서 원각사종은 조종으로 재탄생하였으며, 명동 고개를 거쳐 1619년 종루로 이전되었다. 이때부터 명실상부한 종루종[보신각종]으로서 1908년 일제가 타종을 중단시킬 때까지 300년 가까이 매일 새벽[파루(罷漏)]과 저녁[인정(人定)]마다 규칙적으로 타종되었

다. 원각사종[범종]에서 보신각종[조종]으로의 변신은, 종소리가 상징하는 바가 부처의 소리에서 임금의 소리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원각사종이 보신각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불교지우기’는, 조선 전시기에 걸쳐 불교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요컨대, 보신각종에서 확인되는 불교지우기야말로 조선시대 한국 사회의 탈불교화를 역설한다 하겠다.

주제어: 세조, 범종, 조종, 원각사종, 보신각종, 불교지우기, 탈불교화, 벽불

원각사종(圓覺寺鐘)에서 보신각종(普信閣鐘)으로

-조선시대 탈불교화의 일례-

남동신(南東信)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I. 머리말

국립중앙박물관 동쪽 보호각 안에 있는 보신각종은, 한국 역사상 최후의 호불군주인 세조(世祖)가 만년(1468)에 조성한 조선시대 최대의 종이다. 이 종은 15세기 중반 처음 조성된 이래 20세기 초까지 수백 년 동안 매일 새벽과 저녁마다 규칙적으로 한양 도성을 울렸다. 그야말로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신각종은 일찌감치 종명(鐘銘)을 포함하여 주요 구성 요소가 인위적으로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이리저리 옮겨질 때마다 종의 호칭이 바뀌어서 마침내 관련 문헌자료들도 착종되었다. 그 결과 무엇을 주 자료로 채택하는가에 따라서 학설도 분분해졌는 바, 크게 ‘보신각종=원각사종’설,¹ ‘보신각종=홍천사종’설,² 그리고 ‘보신각종≠원각사종(≠홍천사종)’설³로 나눌 수 있다. 예컨대 보신

- 1 주요 문헌은 『중종실록』, 『遺閑雜錄』, 『東國輿地備考』 등이 있으며, 관련한 주요 연구성과는 아래와 같다.
關野貞, 『韓國建築調査報告』(東京: 東京帝國大學工科大学, 1904), pp. 217-224, 第333-335圖.
李重華, 『鐘樓と普信閣鐘に就いて』, 『朝鮮』 199(1931), pp. 113-126; 『鐘樓と普信閣鐘に就いて(二)』, 『朝鮮』 200(1932), pp. 168-179; 『鐘樓와 普信閣鐘에 對하여』, 『震檀學報』 6(1936), pp. 108-131 재수록.
金永上, 『한국일보』 1959. 1. 16. (2)~동 11. 26. (2), 『서울六百年』; 『雲從街鐘樓考』, 『郷土서울』 36(1979), pp. 115-135.
黃壽永, 『제4부 제4장 梵鐘』, 『서울特別市史(古蹟篇)』(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편, 1964), pp. 854-871.
반재식 편저, 『普信閣』(서울: 종로문화원, 1998), pp. 128-147.
南辰阿, 『朝鮮 初期 王室發願 梵鐘 研究』(영남대학교 미학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pp. 51-53.
최웅천, 『보신각종』, 『불교신문』 2018. 5. 15; 최웅천, 『한국의 범종』(서울: 미진사, 2022), pp. 328-335 재수록.
김일권, 『한양 도성의 중심점 원각사의 십층탑과 대종에 대한 土中 공간론과 佛天의 시공간학 코스몰로지』, 『민속학연구』 49(2021), pp. 113-148.
- 2 주요 문헌은 『休窩野談』, 『增補文獻備考』, 李德懋의 『城市全圖詩』, 『宮闕誌』, 『五洲衍文長箋散稿』, 『大東地志』, 『漢京識略』 등이며, 주요 논고는 다음과 같다.
藤井萬年, 『普信閣の鐘の由來』, 『朝鮮研究』 3-5(1930), pp. 33-34.
鄭永鎬, 『朝鮮前期 梵鐘考』, 『東洋學』 1(1971), pp. 135-188.
康永夏, 『韓國梵鐘에 關한 研究(第5號 普信閣鐘)』, 『梵鐘』 4(1981), pp. 27-54; 『韓國梵鐘에 關한 研究』, 『梵鐘』 11(1988), pp. 17-95; 『韓國의 鐘』(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1), pp. 393-442 재수록.
주경미, 『조선 전기 왕실발원종의 연구』, 『東洋學』 42(2007), pp. 221-241.
- 3 주요 문헌은 『東國文獻備考』, 『朝鮮會通』 등이 있으며, 관련 글은 다음과 같다.
靑吾, 『京城五大鍾辨正錄』, 『別乾坤』 23(1929), p. 75.
湖岩, 『普信閣』, 『朝鮮日報』 1935. 7. 23. (5).

각종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은 ‘보신각종=원각사종’설을,⁴ 국가 지정 문화재를 총괄하는 문화재청은 ‘보신각종=정릉사(홍천사)종’설을⁵ 각각 따른다. 이것이 필자가 보신각종의 내력을 재검토하게 된 동기이다.

착종된 문헌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한 세기 전에 이중화가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그는 보신각종을 전문한 최초의 학술 논고에서 문헌자료를 치밀하게 사료 비판하였다. 특히 ‘보신각종=홍천사종’설의 유력한 근거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가 원자료를 발췌 인용하는 과정에서 범한 실수를 밝힘과 동시에 ‘보신각종=원각사종’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⁶ 다만 안타깝게도 이중화의 고전적 논문은 그 논지가 후학들에게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였다. 애초에 일어로 작성한 그의 논고는 분량이 많아서 두 편으로 나누어 1931년과 1932년에 연재하였다. 그리고 1936년에 두 편을 합쳐서 우리말로 번역하여 다시 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편집의 실수로 논문의 마지막 3장 가량이 잘린 채 인쇄되었다. 공교롭게도 이중화가 보신각종이 홍천사종으로 오인되는 과정을 추적한 부분에서 논문이 끝났으며, 정작 보신각종이 원각사종이라는 이중화 자신의 결론 부분은 누락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진단학보』에 실린 한글 논문만 읽은 대다수 연구자들은, 이중화의 논지를 파악하는데 혼란을 겪거나 심지어 반대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지난 100년 동안의 선행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보신각종의 조성, 외형과 위상의 변화,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제1장에서는 세조가 보신각종을 조성하게 된 정치적 사상적 배경으로서 조선 전기 왕명으로 조성한 종을, 범종(梵鐘)과 조종(朝鐘)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⁷ 조종과 범종이 의식적으로 구분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왕조 개창 직후부터였다. 따라서 조선 전기 종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범종과 조종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관점이 타당하다.⁸ 다만 대다수 연구자들이 따르는 ‘왕실 발원’보다는 ‘왕명’의 관점을 채택하고자 한다. 왕실은 국왕과 나머지 왕실 구성원을 구분하지 않는 개념이어서, 조선 전기의 특색인 ‘조종’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조종의 성격과 위상을 선명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왕명으로 조성한 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편 선행 연구가 보신각종의 현재 모습에 주목하였다면, 본고는 제2장에서 지금은 전하지 않는, 즉 사라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보신각종은 외관상 인위적으로 훼손된 흔적이 역력할 뿐 아니라, 소리 또한 과거의 웅혼함을 잃어버렸다. 기왕에도 훼손의 원인으로 병화 등의 화재라든가 인위적 훼손이 간헐적으로 언급되었지만, 이 훼손이 본격적으로 검토된 적은 없었다. 본고는 보신각종

4 국립중앙박물관(<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treasure/view?relicId=4325>). 2023년 6월 3일 검색.

5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search.cha.go.kr/>). 2023년 6월 3일 검색.

6 李重華, 「鐘樓と普信閣鐘に就いて」, 『朝鮮』 199(1931), pp. 113-126; 「鐘樓と普信閣鐘に就いて(二)」, 『朝鮮』 200(1932), pp. 168-179; 「鐘樓와 普信閣鐘에 對하여」, 『震檀學報』 6(1936), pp. 108-131 재수록.

7 범종에는 鐘을, 조종에는 鍾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8 주경미, 앞의 논문(2007), pp. 221-241 참조.

에 보이는 인위적인 훼손의 실상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고, 훼손의 이념적 배경으로 성리학자들의 벽불론(闕佛論)을 주목하며, 이를 ‘불교지우기’ 내지 ‘불교 얼굴 지우기’로 해석하고자 한다. 오늘날 불교문화유산탐, 불상, 불화, 문헌, 사원 등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불교지우기의 상흔은, 불교가 조선시대 장기간에 걸쳐 거칠게 공격받았음을 반증한다.

요컨대, 애초의 원각사종이 지금과 같은 보신각종으로 변천하였는데, 그것은 조선시대 탈불교화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제3장에서는, 세조가 원각사에 봉안할 목적으로 조성한 범종이 종루[보신각]로 이전되고 성격이 조종으로 바뀐 이후의 변천사를 종소리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흥미롭게도 동일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따라서 그 소리가 상징하는 바는 달라졌다.

II. 조선 초 왕명으로 조성한 조종(朝鍾)과 범종(梵鐘)

한국종을 대표하는 〈성덕대왕신종〉(771)은 통일신라시대 사람들이 종의 기원과 성격 및 소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잘 말해준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와 같다. 종은 서역에서는 쿠산조의 카니시카왕이, 중국에서는 전설시대의 고(鼓)와 연(延)이 처음 만들었다. 범종인 전자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의 원음(圓音)을 담았으며, 조종인 후자는 제왕의 으뜸가는 공적을 종신에 새겼다. 그리고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이후 언젠가 기원이 다른 두 종이 하나로 합쳐졌으며, 불교와 함께 우리나라로 전해졌다. 마침내 8세기 중반 경덕왕(景德王)은 선왕인 성덕왕(聖德王)을 포함한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신라 왕조가 영원무궁토록 번창하기를 기원하면서 온 우주를 울릴 만큼 우렁찬 소리의 큰 종을 주조하여 봉덕사(奉德寺)에 봉안하였던 것이다.⁹

이처럼 신라시대에는 범종이 조종의 역할을 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불교가 지배적 문화였던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고려 말인 1346년에 조성된 개성 연복사종 또한 범종이면서 조종의 역할을 겸하였다.¹⁰ 다만 양식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있어서, 성덕대왕신종이 전형적인 한국종 양식이라면, 연복사종은 한국종의 전통에서 벗어나 원대 중국종의 양식을 따랐다. 단절에 가까운 양식상의 커다란 변화에 이어 마침내 조선 초에는 범종과 조종이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조종은 역사상에서는 ‘조종모고(朝鐘暮鼓)’의 줄임말, 즉 이른 아침에 치는 종을 의미하였다. 본고는 성격에 따라 사원에서 종교적 의례 의식에 사용하는 종을 범종(梵鐘, Buddhist Bell), 조정(朝廷)에서 시보(時報) 등의 세속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종을 조종(朝鍾, Court Bell)이라 부르겠다. 아울러 혼선을 막기 위하여 종이 처음 걸린 건물의 명칭을 따서 종을 명명하고자 한다.

9 남동신 역주, 『聖德大王神鍾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권3(1992), pp. 383-393.

10 높이 3.24m, 현 소재지 황해북도 개성시 북안동 개성 남대문루, 북한 국보 제136호[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2014), pp. 250-253, 연복사종 참조].

1. 태조~세조대의 조종 4구

조선 초에 왕명으로 조성한 종은 종루종(鍾樓鍾, 태조 7년), 돈화문종(敦化門鍾, 태종 13년), 광화문종(光化門鍾, 세종 16년), 사정전종(思政殿鍾, 세조 4년), 용문사종(龍門寺鍾, 세조 5년), 흥천사종(興天寺鍾, 세조 8년), 원각사종(圓覺寺鍾, 세조 11년/14년), 유점사종(楡岾寺鍾, 예종 1년), 낙산사종(洛山寺鍾, 예종 1년), 봉선사종(奉先寺鍾, 예종 1년) 등 적어도 10구가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앞의 4구는 모두 조종으로 조성되었는 바, 흥미롭게도 1대1종의 불문율을 잘 보여준다.

1) 태조의 종루종

중국은 고대로 공업(功業)을 세운 제왕들이 종(鍾)과 정(鼎)을 새로 주조하고 거기에 공업의 내용을 새겨서 하늘에 고하고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하였다. 태조 이성계 또한 천명을 받아 조선왕조를 개창한 지 3년째 되던 해(1394)에 한양을 새 도읍으로 정하고 이듬해부터 왕궁 건설에 착수하면서 커다란 종을 주조하고 시가에 종각을 세워 걸도록 하였다. 그런데 1395년 시험 타종 때 종이 깨져서 다시 주조할 것을 명하였는 바, 1398년 4월 태조가 광주(廣州)에 행차하여 중주(重鑄)한 종을 보았으며, 같은 달 종루에 걸고 타종을 마쳤다.¹¹

권근(權近)이 지은 「주종명병서(鑄鍾銘并序)」에는 주종의 성격, 목적 및 경과가 간명하게 정리되어 있다.¹² 특히 종의 용도가 '장차 도읍의 중심에 걸고 새벽과 저녁에 타종하여 인민들이 일하고 쉬는 시간을 엄정히 함'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종명에는 당연히 조선왕조 개창에 공을 세운 개국공신들의 이름이 새겨졌을 것이다.

조선조 최초의 조종인 이 종은 고유의 이름 없이 단지 '대종'이라 하였는 바, 종루에 걸렸기 때문에 '종루종' 또는 '운종가종(雲從街鍾)'으로도 불리웠다. 흥미롭게도 권근의 종명에는, 고려시대의 종과 달리, 불교 관련한 용어나 구절이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조선왕조 개창의 주역들이 처음부터 고려조의 범종과는 다른 조종을 주조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였음을 보여준다.

안타깝게도 종루종은 임진왜란 때 병화로 용삭(融削)되었다. 그래서 선조가 환도한 뒤인 1595년부터 군기시는 깨진 종루종을 녹여 총통을 주조하기를 거듭 건의하였다. 그러나 2백 년이나 된 공가(公家)의 구물(舊物), 즉 태조의 명으로 주조한 종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는 여론도 있어서, 임시로 종루 땅속에 묻어두도록 하였다.¹³ 현재는 그조차 전하지 않기 때문에, 최초의 조종인 종루종이 이전의 범종과 얼마나 달랐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11 『태조실록』 권13, 태조 7년 4월 15일(신묘); 동 7년 4월 28일(갑진).

12 『태조실록』 권13, 태조 7년 4월 4일(경진); 『陽村集』 권23, 「鑄鍾銘并序」; 『東文選』 권50, 「鑄鍾銘并序」.

13 『선조실록』 권64, 선조 28년 6월 4일(을사); 권71, 선조 29년 1월 28일(을미).

2) 태종의 돈화문종

1412년(태종 12) 9월 주철로 돈화문에 걸 태종의 주조를 명하였다. 이때 변계량(卞季良)이 지은 종명이 전해지고 있어서 주종의 배경과 경과를 알 수 있다. 즉, 태종은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평정하면서 사직을 안정시킨 커다란 공업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종을 조성하였으며, 종의 용도는 새벽과 밤의 경계, 또는 군신(君臣)이 조회하는 시각을 엄히 하는 데 있었다.¹⁴ 아마 종에는 제1차 왕자의 난과 제2차 왕자의 난에서 각각 공을 세운 정사공신(定社功臣)과 좌명공신(佐命功臣)의 이름이 새겨졌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기사는 무척 흥미롭다.

예문관제학 변계량에게 명하여 공문 누각의 종명을 짓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공신으로 맹세를 위반한 자는, 청컨대, 그 이름을 삭제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임금이, “역대 공신의 선악은 모두 전하니 비록 삭제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라고 하였다. 의정부에서 맹약을 위반한 자의 명단을 모두 써서 다시 청하니, 임금이, “鄭道傳·張志和·沈孝生·李勲·辛克禮 같은 자는 마땅히 모두 기록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의정부에서 또, “鍾과 鼎에 이름을 새기는 것은 萬世에 밝게 보이심이니, 충성과 간사함이 서로 섞여서는 불가합니다. 그중에서도 신극례는 錄券을 거두지 않았으니, 혹시 아울러 기록함이 옳겠습니까.”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¹⁵

1412년 9월의 이 기사는 역대의 조종에 공신의 이름을 새겼음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다만 대부분의 자료와 이에 근거한 선행 연구에서는 주종 연월을 1412년이라고 하였지만, 이는 주종을 명한 해이다. 정확히는 이듬해 정월에 종이 완성되어서 돈화문(敦化門)에 걸렸다.¹⁶ 주지하다시피 태종은 1404년 개성에서 한양으로 환도한 이래 정궁인 경복궁이 아니라 이궁(離宮)인 창덕궁을 새로 건설하고 그 때부터 창덕궁을 본궁으로 삼아 계속 머물렀다. 주종을 명한 1412년은 바로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이 완성된 해이기도 하다. 그래서 태종의 공업을 새긴 대종은 자연스럽게 돈화문 문루에 걸렸다.

이후 언제인가 돈화문종은 광화문으로 옮겨졌다. 변계량이 지은 같은 종명이 1478년(성종 9)에 편찬된 『동문선』에는 ‘신주종명병서(新鑄鍾銘并序)’의 제목으로 실린 반면,¹⁷ 1530년(중종 25)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광화문종명병서(光化門鍾銘并序)’라고 되어 있어서,¹⁸ 늦어도 1530년 이전에는 옮겨졌음을 시사한다. 안타깝게도 태종의 명으로 조성한 이 종 역시 임진왜란 때 종루종과 함께 병화로 파괴되어 전하지 않는다.

14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9월 15일(정유); 『東文選』 권50, 「新鑄鍾銘并序」;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 성곽 궁성조; 『春亭集』 권12, 「光化門鍾銘并序」.

15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9월 15일(정유).

16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1월 27일(정미).

17 卞季良, 「新鑄鍾銘并序」(『東文選』 권50).

1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 성곽 궁성조. 1825년에 중간한 『春亭集』 권12에도 「光化門鍾銘并序」라고 되어 있다.

3) 세종의 광화문종

세종은 태조나 태종과 달리 비교적 순조롭게 즉위하였으며, 긴 재위 기간 동안 별다른 정변이나 반란 및 전쟁이 없었다. 그야말로 세종대는 안정된 국내의 정세를 배경으로 문물과 예악이 화려하게 꽃피운 태평성대였다. 역설적이게도 선왕들처럼 종정(鍾鼎)에 길이 남길 그런 공업과 공신은 없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32년(세종 14) 4월에 주철로 종을 새로 주조하여 궁문에 걸도록 하였다. 그때 예문관 대제학 정초(鄭弼召)가 지은 종명이 실록에 전한다.¹⁹ 종명에 따르면, 큰 종을 주조하는 의도는 궁문에 달아서 조회 때는 엄고(嚴鼓)를 울리고 새벽과 저녁에는 문한(門限)을 알리는 데 있었다고 한다.

종명에서 종을 걸 장소를 단지 ‘궁문(宮門)’이라고만 하여서 어느 궁을 말하는지 분명치 않다. 그런데 세종은 주종을 명하기 불과 이틀 전에 처소를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옮김으로써,²⁰ 경복궁이 명실상부한 정궁의 위상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2년 후인 1434년 3월 세종은 희우정(喜雨亭)에서 돌아오는 길에 광화문에 이르러 신(新)·구(舊) 두 종을 치게 한 바, 새로 주조한 종의 소리가 더 좋았기에, 마침내 새 종을 광화문에 달도록 하였다.²¹ 여기서 말하는 ‘새 종’은 세종이 새로 주조한 종을 가리키므로, 늦어도 3월 이전에는 새 종의 주조를 마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옛 종’은 아마도 1425년(세종 7)에 남문(南門), 즉 광화문으로 옮겨 단 홍천사종을 가리키는 듯하다.²² 그러므로 세종은 자신이 주조한 종을 광화문에 걸면서 홍천사종은 본 절로 되돌려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태종의 돈화문종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늦어도 1530년 이전에 광화문으로 옮겨졌는데, 임진년 병화로 경복궁과 창덕궁이 잿더미로 변할 때 광화문과 돈화문의 종들도 모두 용삭되었다. 세종의 광화문종은 기왕에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는데,²³ 향후 후속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덧붙이자면, 세종은 1435년 정월에 함부로 종루에 올라서 종 치는 것을 엄금하면서, 의금부로 하여금 문을 잠그고 규찰토록 하였다.²⁴ 그리고 1440년 5월에는 새로운 종루를 완성하였는데,²⁵ 이것이 바로 세종이 동서 5칸, 남북 4칸으로 증축하였다는 운종가의 종루로 추정된다.²⁶

19 『세종실록』 권56, 세종 14년 4월 29일(정사), “藝文大提學鄭弼召 製進新鑄鍾銘, 其辭曰, 今上卽位之十五年 壬子夏, 新鑄鍾, 將以懸于宮門. 群臣請銘, 上以命臣弼, 臣弼謹再拜稽首獻銘.”

20 『세종실록』 권56, 세종 14년 4월 27일(을묘).

21 『세종실록』 권63, 세종 16년 3월 18(을미); 동 26일(계묘).

22 『세종실록』 권28, 세종 7년 4월 19일(무오).

23 주경미가 세종 14년의 돈화문종 주조 기사를 소개하면서, 태종이 주조한 돈화문종의 행방이라든가, 세종이 명한 돈화문종의 완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주경미, 앞의 논문(2007), pp. 6-7].

24 『세종실록』 권67, 세종 17년 1월 14일(병술).

25 『세종실록』 권89, 세종 22년 5월 13일(갑인).

2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 한성부 궁실 종루.

4) 세조의 사정전종

조선 전기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조종은 세조의 명으로 조성한 사정전종(思政殿鍾)이다. 수양대군(세조)은 1453년 10월에 유혈정변[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켜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는 바, 같은 달에 수양대군을 포함한 45인이 정난공신(靖難功臣)으로 정해졌다.²⁷ 그리고 1455년 윤6월에 수양대군은 단종으로부터 선위를 받아 즉위하였는 바, 즉위 과정에서 공을 세운 자 44인을 그해 9월 좌익공신(佐翼功臣)으로 정하였다.²⁸ 그런데 이듬해 6월 사육신 사건이 일어나서,²⁹ 좌익공신인 성삼문(成三問)과 이휘(李徽)가 추탈되고 대신 모의를 고발한 김질(金漬)이 좌익공신록에 추록(追錄)되고 그 장인인 정창손(鄭昌孫)이 3등에서 2등으로 승급되었다.³⁰

『세조실록』에는 관련 기사가 보이지 않지만, 아마도 세조가 사정전종의 주조를 명한 때는 사육신 사건 직후로 추정된다. 당시 신숙주(申叔舟)가 찬술한 종명은 새로운 대종을 조성한 이유와 경과를 잘 보여준다. 즉, 세조는 조정을 어지럽힌 권간(權姦)을 평정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종사(宗社)를 중흥시킨 대업(大業)을 이룩하였으므로, 그 공업을 후세에 길이 전할 대종을 주조토록 하되, 세조는 군정(軍政)을 최우선시하였으므로, 금군(禁軍)을 호령할 용도로 대종을 조성하여 편전인 사정전의 앞쪽 낭무(廊廡)에 비치케 하였다고 한다.³¹

탁본에 따르면, 종은 ‘천순(天順) 원년(1457, 세조 3) 3월’에 완성되었다.³² 그해 7월에 세조는 사정전 월랑(月廊)에 나아가 새 종을 쳐서 대궐 안의 군사들을 모아 술을 하사하였다.³³ 그 직후 세조는 세종이 일찍이 경회루 남쪽에 건립한 보루각(報漏閣) 쪽에 별도의 누각을 지어서 사정전종을 옮겨 달았으며, 같은 해 9월에 경회루 문밖으로 끌어내어 종명을 고친 다음 광화문 밖 오른쪽[서쪽]에 새로 종각을 지어 달도록 명하였다.³⁴

세조가 1457년 3월에 완성한 대종의 종명을 9월에 개각(改刻)하도록 한 까닭은, 개각령(改刻令) 불과 4일 전에 세자 도원군(桃源君)이 병으로 요절한 데 있었다.³⁵ 개각한 사정전종에는 양녕대군을 위시한 종친 15인이 열거되었는데, 유독 세자 도원군이 빠졌으며 대신 차남인 8세의 어린 해양대군(海陽大君)이 보인다. 도원군은 이보다 앞서 정난(靖難)의 공을 인정받아 흥록대부(興祿大夫)가 되었

27 『단종실록』 권8, 단종 1년 10월 15일(무술).

28 『세조실록』 권2, 세조 1년 9월 5일(정축).

29 『세조실록』 권4, 세조 2년 6월 2일(경자).

30 『세조실록』 권4, 세조 2년 7월 1일(경오).

31 『保閑齋集』 권16, 「新鑄大鍾銘 并序」; 『東文選』 권50, 「新鑄大鍾銘 并序」. 흥미롭게도 이 종명은 이전의 朝鍾과 달리 실록에 실리지 않았다.

32 劉承幹 輯, 『海東金石苑附錄』下(1922), 「朝鮮國新鑄鍾銘并序」[亞細亞文化社 영인, 『海東金石苑』上(1976), p. 1080].

33 『세조실록』 권8, 세조 3년 7월 4일(을축), “御思政殿月廊, 擊新鍾, 聚闕內軍士, 賜酒.”

34 『세조실록』 권9, 세조 3년 9월 6일(정묘).

35 『세조실록』 권9, 세조 3년 9월 2일(계해).

으므로,³⁶ 당연히 사정전종에 그 이름이 새겨졌을 것이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세조의 죽음으로 종명의 개각이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그 작업은 1458년 1, 2월 무렵 끝나서 임시로 종루 아래에 걸어 인정과 파루 때 치게 하였다.³⁷ 그리고 이듬해 4월 광화문 밖 서쪽의 종각이 완성되자 비로소 그곳에 걸었다.³⁸

그런데 임진왜란의 병화로 광화문 밖 별도의 종각에 걸려있던 이 종도 깨졌다. 태조, 태종, 세조가 주조한 조종 3구가 모두 임진왜란의 병화로 망실된 상황에서 세조의 사정전종은, 비록 깨지기는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덜 파손된 듯하다. 1605년(선조 38) 군기시가 ‘광화문 밖의 파종(破鐘)’으로 화기를 만들 것을 건의하였으나, 선조는 조종(祖宗)의 구물이라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³⁹ 오히려 1637년(인조 15)에는 종각을 궐내로 옮겨 세웠다.⁴⁰ 그 후 언젠가 사정전종은 다시 광화문루로 옮겨져 보존되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는 ‘광화문종’으로 불리게 되었다. 17세기 후반에 편찬된 10권본 『금석청완(金石淸玩)』 제4첩(국립중앙박물관 소장)에 ‘광화문종’의 제목 아래 사정전종의 종명과 내용이 일치하는 탁본이 일부 실려 있다.⁴¹ 안타깝게도 1866년(고종 3)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당백전을 주조하는 데 이 종을 녹여서 사용하였다고 한다.⁴² 이로써 조선 초의 4대 조종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사정전종의 종명은, 류승간(劉承幹)이 간행한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1922년) 부록에 온전히 전한다.⁴³ 종명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종에 새겨진 인물 명단이다. 명문에는 먼저 양녕대군(讓寧大君) 이하 종친 15인(2명은 공신), 정인지(鄭麟趾)를 위시한 공신 66인—1453년의 정난공신과 1455년의 좌익공신—, 그리고 원종공신 134인, 도합 215인이 열거되었으며, 이어서 주종 관계자 39인이 직책별로 나열되었다. 이 명단은 탁본에 근거한 『해동금석원』에만 전하며, 연구자 중에서는 홍사준이 유일하게 『해동금석원』을 인용하여 소개하였을 뿐이다.⁴⁴ 이 명단은 사정전종 또한 세조의 공업을 후세에 영원히 전하려는 의도에서 제작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36 『단종실록』 권9, 단종 1년 11월 8일(경신).

37 『세조실록』 권11, 세조 4년 2월 11일(경자); 『국조보감』 권11, 세조 무인 3년 춘정월.

38 『세조실록』 권16, 세조 5년 4월 21일(임신); 동 권23, 7년 2월 4일(을해);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 한성부 궁실 종각.

39 『선조실록』 권188, 선조 38년 6월 11일(갑인).

40 『인조실록』 권35, 인조 15년 7월 2일(무진).

41 『朝鮮金石總覽』下, pp. 1367–1368에도 ‘동국여지승람’에서 인용하였다고 하는 ‘광화문종’이 실려 있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광화문종’은 앞서 살펴본 ‘돈화문종’이다.

42 靑吾, 『京城五大鍾辨正錄』, 『別乾坤』 23(1929), p. 75.

43 청말 민국 초에 활약한 금석학자 劉承幹은 전란으로 흩어진 劉燕庭의 『海東金石苑』(1832년, 草藁本)을 校訂 補遺하여 1922년 다시 간행하였다. 이때 劉燕庭의 原書에 실렸던 금석문만이 아니라 羅振玉(字 叔言)이 舊藏하고 있던 葉氏의 平安館 寫本 “高麗金石錄”에서 8碑를 교감하여 附錄하였는데, 사정전종명은 바로 이때 부록된 8비의 하나이다[아세아 문화사 영인, 『海東金石苑』附錄 下(1976), 『朝鮮國新鑄鐘銘并序』, pp. 1077–1102]. 현재로서는 이 자료가 사정전종의 탁본에 근거한 유일한 판독문이다.

44 洪思俊, 앞의 논문(1978), pp. 77–95 참조.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요컨대, 태조, 태종, 세종, 세조는 모두 제왕으로서의 공업(功業)을 기념하는 커다란 조종을 1대 1구씩 조성하여, 도성의 중심[종루]과 양대 궁궐의 정문[돈화문과 광화문] 등에 각각 걸어 매일 새벽[파루]과 저녁[인정]에 타종함으로써, 신민(臣民)들의 동작과 휴식을 제어하고자 하였다. 흥미롭게도 이들 종의 종명에서는 불교적 색채를 일절 찾을 수 없으며, 불교 사찰에 걸리지도 않았다. 이는 통일신라의 봉덕사종[성덕대왕신종]이나 고려의 연복사종이 사찰에 걸린 범종이면서 신민들에게 시각을 통보하는 조종의 역할도 겸하였던 것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들 조종 4구는 불교적 요소를 제거하고 유교적 예제에 따라 제작한 명실상부한 조종(朝鍾)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 종들은 조선 초의 탈불교화 노선을 잘 보여준다.

표 1. 태조~세조대 왕명으로 조성한 朝鍾 4구

	이름	왕	주조 시기	연혁	비고
1	종루종	태조	1396. 12. 初鑄 1398. 4. 重鑄	종루(청운교 부근 市街→운종가)→임진왜란 때 병화로 망실	權近의 종명(태조실록, 양촌집, 동문선)
2	돈화문종	태종	1413. 1.	돈화문→광화문→임진왜란 때 병화로 融削	卞季良의 종명(태종실록, 춘정집, 동문선, 신증동국여지승람)
3	광화문종	세종	1434. 3.	광화문→임진왜란 때 병화로 때 融削	鄭弼召의 종명(세종실록)
4	사정전종	세조	1457. 3. 初鑄 1458. 2. 改刻	사정전 앞 낭무→경회루 밖 보루각→광화문 밖 서쪽 종각→임진왜란 때 병화로 破鍾→광화문루→대원군이 경복궁 중건 때 녹여서 당백전 주조에 사용	申叔舟의 종명(보한재집, 동문선, 신증동국여지승람, 1992 해동금석원)

* 종의 이름은 종이 처음 걸린 건물의 명칭을 따랐음.

여기서 세조가 새로운 대종을 조성한 다음 세종과 인연이 깊은 보루각 근처, 나중에는 광화문 근처에 종각을 새로 지어서 건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세조는, 계유정난→세조의 즉위→사육신의 단종 복위 사건→단종의 노산군 강봉과 유배→단종의 죽음에 이르는 반(反)유교적이고 피로 얼룩진 일련의 정변을 자신의 공업으로 정당화하고 그것을 후세에 영원히 전하려는 의도에서 사정전종을 주조하고 다시 종명을 개각한 것이다. 즉, 세조는 태조-태종-세종으로 이어지는 왕위계승의 적통성이 자신에게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정치적 상징으로 사정전종을 주조한 것이다.

2. 세조대의 범종 3구

세조대는 가히 대종이 만개한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때까지 역대 왕들은 탈불교화의 기조 위에서 1대1종의 불문율에 따라 조종만 조성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호불군주인 세조는 그때까지의 탈불교화에 역행하여 범종을 적어도 3구—용문사종, 흥천사종, 원각사종—이상 주조하였다. 또한 유점사종과 낙산사종은 세조가 발원하여 예종대에 완성되었으며, 봉선사종은 예종이 세조의 명복을 기리고자 조성하였다. 이들 6구는 모두 사찰에 봉안하여 예식에 사용하기 위한 범종인 바, 세조와

불가분의 관계에서 조성되었다.

1) 용문사종(1459)

세조가 조성한 최초의 범종은 1459년(세조 5)⁴⁵ 11월 중궁과 함께 용문사를 참배할 때 주조하여 용문사에 봉안한 동종이다. 이보다 앞서 1447년(세종 29)에 수양대군이 용문사를 돌아가신 모후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沈氏)의 원찰로 삼았다. 용문사종은 왕실의 숭불을 배경으로 조성된 것인데, 지금까지 학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단지 홍사준이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를 인용하여 종명의 전문을 소개한 것이 유일하다.⁴⁶ 아울러 종명의 탁본 일부가 17세기 후반에 편찬된 『금석청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10첩 및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일본 덴리대학 도서관 소장) 제5첩에 실려 있음이 최근 학계에 보고되었다.⁴⁷

용문사종은 위의 두 금석첩이 편찬되던 17세기 후반까지는 남아있었으며, 그 이후 근대로 접어들 무렵 상실된 듯하다. 일본 정토진종이 1907년경 조선에 세운 본원사(本願寺)가 용문사종을 매입하였으며, 1932년 당시까지 남산의 동본원사(東本願寺)에 걸려있었는데, 그해 제야 때 본원사종 소리를 경성방송국이 중계하기로 하였다고 한다.⁴⁸ 20세기 초 동본원사에 걸렸던 종의 출처에 대해서는, 용문산 남쪽 자락의 보리사, 용문사, 상원사로 견해가 분분한 바, 이 문제는 별도의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남아있는 용문사종 탁본에 보이는 세조 어제의 종명을 현재의 '상원사 동종'(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74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비록 종은 전하지 않지만, 다행히 『조선불교통사』와 위의 두 첩에 실린 탁본을 종합하면, 주종의 동기를 파악할 수 있다. 종명에서, “천순 기묘년 11월에 내가 중궁과 상의하여 동종 1구를 주조하여 용문사에 시납하였다.”⁴⁹라고 하듯이, 국왕을 1인칭 대명사 ‘여(予)’라고 지칭하였다. 이는 용문사 종명을 세조가 직접 지었음을 증언하는데, 한국역사상 국왕이 종명을 지은 거의 유일한 사례라 하겠다. 세조는 종명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세종과 소헌왕후 심씨)과 더불어 두 달 전에 병사한 의경세자(懿敬世子; 도원군)를 특별히 추복하였다. 말하자면, 세조가 탈불교화에 역행하여 범종을 주조하고 직접 종명을 찬술까지 한 데에는, 의경세자의 요절로 촉발된 그의 숭불심이 있었다.

45 세조대의 연대 표기는 자료에 따라 즉위년칭원법과 유년칭원법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 동시대 자료인 「홍천사종명」, 「원각사종명」, 「낙산사종명」 등은 즉위년칭원법을 따르고 있으며, 예종대 편찬된 「세조실록」 또한 즉위년칭원법을 채택하였다[「예종실록」 권6, 예종 1년 7월 7일(무자)]. 본고는 「세조실록」의 즉위년칭원법에 따르고자 한다.

46 洪思俊, 앞의 논문(1978), pp. 89-90.

47 남동신, 「『金石清玩』研究」, 『한국중세사연구』 34(2012); 남동신 외, 「대동금석서 연구」(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0), pp. 671-672.

48 「조선일보」1932. 12. 31.(토) 2면, 「라디오」로 들리는 除夜の 鍾소리.

49 「朝鮮佛教通史」上, 「龍門寺鍾記」, pp. 407-410.

2) 홍천사종(1462)(도 1-①)

홍천사는 1395년(태조 4)에 신덕왕후 강씨가 사망하자 정릉(貞陵)을 축조하면서 그 동쪽에 세운 능사이다. 정릉과 홍천사는 애초에 새 왕조의 도성으로 한성을 건설할 때 내세웠던 원칙, 즉 도성 안에 무덤과 사찰은 세우지 않는다는 금기를 깬 첫 사례였다. 나중에 태종이 정릉을 성 밖으로 이장하였지만, 홍천사는 태조가 창건한 사찰이기에 원위치에서 건재할 수 있었다.⁵⁰

세조는 용문사종 구성에 이어 홍천사에 새로운 범종을 조성하여 봉안하였다.⁵¹ 세조가, 1대에 1구의 조종을 조성한다는 선왕들의 관행에서 벗어나, 도성 안에 불교식 범종을 조성한 것은, 지금까지의 불교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 배경과 관련하여 한계희(韓繼禧)가 지은 「홍천사종명」의 다음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7년 신사년(1461) 여름 5월 임자일에 檜巖寺에서 석가여래의 사리가 分身하여 상서로운 빛과 기운이 하늘에 피어오르고 기이한 향기가 크게 일어나 산골짜기에 가득 찼다. 효령대군 보가 절에 머물다 사리 25과를 얻어 진상하였다. 왕과 자성왕비께서 내전에서 예를 올렸더니 다시 분신하였으며, 함원전에 안치하였더니 또 분신하였다. (나흘 후) 병진일에 효령대군이 다시 분신사리를 얻어 왕비께 올리기에 내전에서 예를 올렸더니 또다시 분신하였다. 다음날(정사)에 왕께서 친히 계송(讚)을 지어 관현악에 입히고 왕비와 함께 함원전에서 공양하였더니 거듭 분신하였다. 이렇게 앞뒤로 얻은 분신 사리가 도합 102과였다. ……왕께서 크게 기뻐하여 사면을 내리고 큰 誓願을 내어 친히 楞嚴經을 번역하고…… 祖宗과 모든 영혼을 위하여 여래상 1구를 만들고, 또 중궁 세자를 위하여 불상 1구를 만들고 다시……두 보살상(관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을 만들어 조성이 끝나자 각각 그 속에 사리를 넣어 禪宗 興天寺의 숭례閣에 봉안하였다. 왕이 왕비와 함께 보좌에 예배하고 분향 공양하였으며, 항상 六時에 올려서 미혹한 중생을 인도할 큰 종을 만들라 명하였다.⁵²

이처럼 세조는 1461년 여름 5월에 있었던 일련의 석가사리 분신의 이적을 명분으로 도성 사찰인 홍천사에 불사를 크게 일으켰는 바, 그 대미를 장식하는 불사가 바로 홍천사종의 주조였다. 현존하는 중에는 ‘천순 6년 임오 시월(天順六年 壬午 十月)’의 주종 연월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성종 초에 편찬된 『세조실록』에는 석가사리 분신에서 시작하여 홍천사종의 주종에 이르는 일련의 불사가 일체 누락되었을 뿐 아니라, 홍천사종명 또한 『대동금석서』에 수록된 부분 탁본을 제외하면 여타 문헌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홍천사종 주종을 포함한 세조의 홍천사 불사가 당시 유자들에게 어

50 건국 초기 한양 도성에 사찰을 건립한 역사적 의미에 대하여는 강호선, 「개경과 한양의 사찰—도성사찰의 역할과 의미—」, 『역사와 현실』 125(2022), pp. 65–101을 참조.

51 세종 7년(1425)에 興天寺鍾을 南門, 즉 광화문에 옮겨 달게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세조실록』 권28, 세종 7년 4월 19일(무오), 홍천사에는 이미 종이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다만 이 종에 관한 더 이상의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52 『朝鮮金石總覽』 下, pp. 739–742; 趙東元, 『韓國金石文大系』 5(익산: 圓光大學校 出版局, 1988), pp. 103–104.

구성 요소	① 흥천사종(1462)	② 보신각종(원각사종, 1468)	③ 봉선사종(1469)
용뉴(쌍룡)			
견판(복련)			
보살입상			
종명			
수파문			
종구			

도 1. 보신각종 전체(가운데)

땡게 비쳐졌는가를 반증한다.

흥천사종은 1504년 유생들의 방화로 흥천사가 불탄 이후 30년 남짓 방치되었다. 그리고 1536년 실권자 김안로(金安老)의 건의로 흥인문(興仁門)[동대문]으로 옮겨졌지만, 그 직후 김안로가 패사(敗死)하면서 또다시 흥인문 풀숲에 방치되었다.⁵³ 1748년(영조 24)에 와서야 왕명으로 동대문에 종각을 세우면서 비로소 그곳에 걸렸으며,⁵⁴ 경복궁 중건과 함께 1865년(고종 2) 광화문루로 옮겨졌다.⁵⁵ 그리고 조선왕조의 멸망과 동시에 흥천사종은 역사 유물로서 창경궁에 있던 이왕가박물관에 수장되었으며, 이후 덕수궁을 거쳐 최근 고궁박물관으로 옮겨졌다.

3) 원각사종[1465년 초주(初鑄), 1468년 개주(改鑄)](도 1-②)

1464년 세조는 즉위 10년을 맞이하여 도성 한복판에 폐사지로 남아있던 옛 절 흥복사(興福寺)를 대대적으로 중창하고 ‘원각사(圓覺寺)’라 사액하면서, 절에 봉안할 대종을 새로 조성하였다. 최항(崔恒)이 찬술한 종명에 따르면, ‘임금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我后之心卽我佛之心)’인지라 세조는 석존의 가르침을 유포해서 만물과 중생을 구제하였는 바, 우주 전체를 울릴 커다란 종을 주조하여 원각사 운뢰각(雲雷閣)에 걸도록 하였다고 한다.⁵⁶ 대종 주조에 소요되는 5만 근의 구리 가운데 절반

53 『중종실록』 권81, 중종 31년 4월 9일(계사); 권82, 중종 31년 7월 14일(정묘).

54 『영조실록』 권67, 영조 24년 5월 8일(신묘).

55 『增補文獻備考』 권3, 상위고 儀象2 附晨昏大鍾.

56 『東文選』 권50, 「圓覺寺鐘銘 并序」.

가량은 각 도에서 시가로 구입하여 조달하였는데,⁵⁷ 실제로 주조에 들어간 구리는 4만여 근이었다.⁵⁸ 그리고 세조 11년(1465) 정월 완성된 신종을 타격하였을 때, 그 소리가 우렁차서 멀리까지 들렸다고 한다.⁵⁹ 이처럼 원각사종은 범종이지만, 그 소리에는 만물을 구제하겠다는 임금과 부처의 같은 마음이 실려 있었다.

원각사종이 지금의 보신각종과 같은 종임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남아있다. 『세조실록』에서 원각사종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1465년(세조 10)과, 보신각종에 새겨진 주종 연월 성화(成化) 4년(1468) 사이에는 3년의 시차가 있다. 보신각종이 처음 봉안된 곳이 원각사였음은 분명하다. 만약 두 종이 별개라면, 원각사에 3년 사이에 조성된 대종이 2구나 있었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그런 취지의 자료도 있지만, 이미 100년 전에 이중화가 엄정한 사료 비판을 통하여 그 오류를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최초 주조한 원각사종을 어떤 연유로 3년 뒤에 개각(改刻) 내지 개주(改鑄)하였다는 가설만 남는다.

주목할 자료는 1908년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 상위고에 보이는 다음의 기사이다.

(세조) 14년 의금부판사 尹子雲과 예문관대제학 徐居正 등에게 명하여 큰 종을 주조하게 하였다. 지금 雲從街樓에 있으며 晨昏을 알린다.⁶⁰

이 기사는 『세조실록』 등의 문헌에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오로지 『증보문헌비고』에만 실렸는데 아쉽게도 그 출전을 밝히지 않았다. 의금부판사는 종1품인데 윤자운은 전 해 겨울에 정2품인 의금부지사로 나온다.⁶¹ 서거정은 이보다 앞서 4월에 형조판서로서 예문관대제학을 겸직하게 되었다.⁶² 또한 보신각종의 제조(提調) 명단에 심안의(沈安義)를 비롯한 모두 11명의 고관이 등장하는데, 그중에서 네 번째와 열한 번째가 각각 ‘의금부판사 윤자운’과 ‘예문관대제학 서거정’이다. 이로 보아 위 인용문에서 말하는 큰 종이 지금의 보신각종임은 분명하다.

한편 보신각종명에 남아있는 주조 연월 ‘성화 4년 2월’은 1465년에 완성된 원각사종명을 부분적으로 개각한 것이 아니라 아예 종 전체를 개주하였음을 시사한다. 최초의 원각사종을 3년 지나서 개주하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사건이 바로 세조 만년에 일어난 이시애(李施愛)의 난이다. 회령절제사 이시애는 호패법 시행에 반발하는 함길도의 토호들을 규합하여 1467년 5월에 난을 일으

57 『세조실록』 권33, 세조 10년 6월 16일(무술).

58 『세조실록』 권34, 세조 10년 12월 12일(신묘).

59 『세조실록』 권35, 세조 11년 정월 16일(갑자); 동 17일(을사).

60 『增補文獻備考』 권2, 象緯考 2 附晨昏大鍾, “十四年, 命義禁府判事尹子雲·藝文館大提學徐居正等, 鑄大鍾. 今在雲從街樓, 以警晨昏.”

61 『세조실록』 권44, 세조 13년 11월 28일(경인).

62 『세조실록』 권42, 세조 13년 4월 5일(신축).

켰다.⁶³ 세조 만년에 조정을 뒤흔든 이 난은 중앙정부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마침내 그해 8월 도총사 이준(李浚) 등에 의해 진압되었다.⁶⁴ 세조는 1467년 9월 이시에난 진압에 공을 세운 문무 관료 44인을 적개공신(敵愾功臣)으로 삼고 등급에 따라 포상하였으며, 아울러 고위 관료들에 대한 대대적인 승진 인사를 단행하였다.⁶⁵

조종에 제왕의 공업과 공신들을 새겨서 후세에 길이 전하는 오래된 전통을 고려할 때, 이시에난을 진압한 이후 적개공신을 새기기 위한 새로운 조종의 주조가 요청되었을 것이다. 말년의 세조는 새로운 조종을 주조하는 대신, 자신이 주조한 종 가운데 가장 크고 소리도 가장 우렁차할 뿐 아니라, 도성 한복판에 봉안한 원각사종을 개주하는 방식을 택한 듯하다. 8행으로 추정되는 도제조 명단은 완전히 지워져서 알 수 없지만, 남아있는 제조에서 적개공신 2등 김국광(金國光)과 3등 한계미(韓繼美)는 확인된다.⁶⁶ 그러므로 삭제된 도제조 중에도 적개공신의 호를 받은 종실이나 고관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흥천사종과 원각사비에 모두 도제조로 이름을 올린 영웅대군(永膺大君) 염(琰)은 1467년 3월에 사망하였으므로, 개주할 때 명단에서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기왕의 범종에 새로 조종의 성격을 가미한 것이 개주 원각사종인 바, 그 소리는 중생을 교화하는 부처의 목소리이자 만민을 통치하는 임금의 목소리였다. 이야말로 호불군주를 자임한 세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상징물이 아닐 수 없다. 세조 즉위 10년 차에 조성한 〈원각사13층석탑〉이 시각적으로 신민들을 교화하였듯이,⁶⁷ 원각사종은 청각적으로 신민들을 교화하였던 것이다.

덧붙이자면, 세조를 이어 예종도 1년 남짓한 짧은 재위 기간에 커다란 범종을 3구나 조성하였다. 유점사종(1469)과⁶⁸ 낙산사종(1469)은 세조가 동순(東巡)하면서 두 절을 중창한 것과 관련 있으며, 마지막 봉선사종(1469)은 세조를 위한 능사(陵寺) 건립의 일환이었으므로, 세 종 모두 세조대 범종 주조의 연장선에 있다. 그중에서도 봉선사종은 조선 초 왕명으로 조성한 마지막 범종이자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춘 완성형이라는 점에서, 원각사종의 원형 연구에서 흥천사종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종이다.

63 『세조실록』 권42, 세조 13년 5월 16일(경진).

64 『세조실록』 권43, 세조 13년 8월 12일(을사).

65 『세조실록』 권43, 세조 13년 9월 20일(임오).

66 『세조실록』 권43, 세조 13년 9월 20일(임오).

67 남동신, 「세조의 원각사13층석탑 건립과 그 의미체계」, 『美術資料』 101(2022), pp. 14-46.

68 원 소재지는 강원도 고성군 서면 백천교리이며, 현 소재지 평안북도 향산군 향암리 묘향산 보현사임. 북한 국보 제162호. 1469년(예종 1)에 처음 주조되었으며, 1729년(영조 5)에 좀더 크게 개주되었음. 단 초주 당시의 양식적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임[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2014), pp. 260-261, 유점사범종 참조].

Ⅲ. 원각사종[범종]에서 ‘불교지우기’

1. 원각사종의 구성 요소

제3장에서는 현재 보신각종[원각사종]의 표면에서 확인되는 인위적 훼손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신각종을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종 전체에 걸쳐 손상된 흔적이 역력하여, 주조 이래 560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종이 겪은 파란만장한 역사를 잘 보여준다. 처음에는 그 원인으로 병화 등의 화재설이 주목받았지만,⁶⁹ 근래에는 인위적 손상, 그중에서도 벽불론자들의 공격에 주목하는 추세이다. 여기서는 후자의 관점에서 훼손된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배경으로 연산군~중종대에 불거진 벽불론을 주목하고자 한다. 흥미롭게도 인위적 훼손은 불교 관련한 명문과 도상에 집중되었다. 이를 위로부터 건대의 복련, 종신 상부의 보살입상 4구, 그리고 종신 하부의 종명순으로 살펴보겠다.

조선 초 왕명으로 조성된 종들은 통일신라~고려의 전형적인 한국종 양식에 명대(明代) 북경종의 양식을 혼합하여 제작하였다.⁷⁰ 따라서 보신각종에서 무엇이 삭제되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세조~예종대에 왕명으로 조성한 범종 5구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종을 구성하는 여덟 가지 주요 요소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여덟 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춘 경우는 하나도 없으며, 요소별로 출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성 요소 가운데 보신각종에 온전한 것은 용뉴와 천안[관통공] 둘 뿐이다. 종을 종가(鐘架)에 거는데 필수적인 용뉴는, 한국종의 특징인 단룡(單龍)이 아니라, 이 시기 새로 유입된 중국종의 쌍룡 형식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한국 학계에서 관통공 또는 원공이라 부르는 것은 중국종의 이른바 천안(天眼)으로서, 타종시 발생하는 사람의 귀에 거슬리는 고음을 외부로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종래 한국종에서는 음관[음통]이 그 기능을 맡았었는데, 고려 말에 연복사종을 필두로 중국종 양식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음관이 천안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일본은 음관이나 천안을 따로 시설하지 않는 대신 종을 높이 걸어서 고음을 배출시켰기 때문에, 일본학계는 음관이나 천안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⁷¹

69 이중화는 1915년 9월 종을 가까이에서 관찰하여 종명의 훼손 사실을 처음 밝혔는데, 다만 여러 차례의 화재로 인한 손상이라고 추정하였다. 李重華, 앞의 논문(1936), pp. 127-130.

70 周奘美, 『朝鮮前期 金屬工藝의 對中交涉』, 한국미술사학회 편, 『조선 전기 미술의 대외교섭』(2006 전국미술사학대회 발표요지문, 2006), pp. 144-146; 『조선 전반기 금속공예의 대중교섭』, 한국미술사학회 편, 『조선 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서울: 도서출판 예경, 2006), pp. 264-270.

71 일본의 대표적인 종 연구자인 쓰보이 료헤이는 조선종의 음관을 甬(旗挿し)이라고 부르면서도 그것이 음률 조절을 위해 만들었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라 시대에도 시대의 유품을 다루면서 일본종에 甬(旗挿し)이 없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坪井良平, 『新訂梵鐘と古文化』(東京: ビジネス教育出版社, 1993), pp. 37-196, 278-279].



도 2. 보신각종의 천안과 봉선사종의 음관

표 2. 세조~예종대 왕명 주조 종의 주요 구성 요소

구성요소 \ 종명	홍천사종	보신각종	유점사종	낙산사종	봉선사종	비 고
용뉴	○	○	○	○	○	쌍룡
천안(관통공)	○	○	미상	○	음관	
견대의 복련	○	삭제	○	○	○	28엽
연곽(유곽)	○	×	○	×	○	
보살입상	○	삭제	○	×	○	4구
범자	×	×	○	○	○	六字光明眞言, 破地獄眞言
종명	○	부분 삭제	○	○	○	
수파문	○	×	당초문	○	○	

* 이 표는 아래의 두 글을 토대로 필자가 일부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廉永夏, 『韓國의 鐘』(서울: 서울大學校出判部, 1991), pp. 396-405.

南辰阿, 『朝鮮 初期 王室發願 梵鐘 研究』(영남대학교 미학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천안은 용뉴의 바로 아래 천판의 중앙에 있어서, 종과 나란히 서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다. 한국 학자들 중에서는 염영하가 최초로 보신각종의 용뉴 바로 아래 반구형 천판의 중심에 직경 130mm, 깊이 150mm 가량의 구멍이 있음을 보고하고 이를 관통공이라 이름하였다(도 2-①).⁷² 보신각종은 전통적인 한국종에 비하여 아름답고도 긴 여운, 즉 맥놀이 현상이 짧은 편인데, 이는 음관이 천안으로 대체된 것과 상관있다.

72 廉永夏, 『韓國梵鐘에 關한 研究(第5號 普信閣鐘)』, 『梵鐘』 4(1981), p. 37. 염영하는 이후에도 조선 전기의 대종들을 조사할 때 실견하기 어려운 관통공을 포함시킴으로써, 후속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한편 봉선사종 또한 중국종의 영향을 받아서 음관이 없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쌍룡의 용뉴 바로 아래, 천판의 한가운데에 음관이 분명히 시설되어 있다(도 2-②).⁷³ 쌍룡의 몸통과 네 발로 둘러싸인 그늘진 곳인데다 음관의 키가 낮아서, 지금까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다. 봉선사종의 감추어진 음관이야말로 한국종 고유의 음관이 중국식 천안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여덟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연곽[유곽], 범자, 수파문(水波文)의 세 가지는 그 유무를 육안 관찰만으로 단언하기 어렵다. 이 중에서 종신의 하대(下帶)를 이루는 두 가닥 굵은 횡대의 간격은 다른 범종들에 비하여 수파문을 새기기에 폭이 좁을 뿐 아니라, 표면에 별다른 손상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횡대 또한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이런 점들로 보건대 수파문은 애초부터 새겨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고려 후기부터 종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육자광명진언(六字光明眞言)이나 파지옥진언(破地獄眞言)도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홍천사종의 선례에 따라 애초에 새기지 않은 듯하다. 다만 연곽과 내부의 연뢰[종유]에 대해서는 지워진 흔적을 확인하였다는 주장도 있지만,⁷⁴ 이 역시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낙산사종처럼 연곽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문제는 정밀한 조사를 기다려야 풀릴 것이다.

2. 불교적 상징과 문자의 삭제

나머지 구성 요소는 불교적 색채가 짙은 건대의 복련, 보살입상 4구 및 종명인데,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인위적으로 삭제된 흔적이 뚜렷하다. 이는 같은 시기에 제작된 5대 범종 중에서도 유독 원각사종[보신각종]에 공격이 집중되었음을 역설한다.

먼저 보신각종에서 건대(肩帶)에 해당하는 천판의 주변부 전체가 끌로 거칠게 깎여나간 흔적이 뚜렷하다. 심지어 건대 아래쪽에 위치하는 상대(上帶)의 두 가닥 굵은 횡대조차 함께 깎여나갔다. 홍천사종, 낙산사종, 봉선사종을 보면, 예외없이 두툼한 양각의 복련 28엽이 가득 시문되어 있어서, 보신각종의 깎여나간 복련도 28엽으로 추정된다(도 3-①). 건대를 포함한 반구형의 천판은 수직으로 작용하는 20톤가량 되는 종신의 무게를 용뉴에 전달한다. 따라서 건대의 두터운 복련을 삭제하게 되면 그만큼 천판이 약해져서 타종시 천판에 부담을 주게 된다. 그럼에도 건대의 복련을 완전히 깎아낸 것은 그만큼 연꽃의 불교적 상징성이 강렬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1836년[헌종(憲宗) 3] 3월에 용뉴

73 필자는 2023년 7월 7일 봉선사종을 간단히 실측하고 촬영하였으며, 이때 용뉴 아래의 좁은 공간에 음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사를 허락하고 편의를 제공해주신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과 종무실의 사희수 실장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74 최응천, 「보신각종」, 『불교신문』 2018. 5. 15. 이와 관련하여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할 때 보신각종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 종을 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천판의 훼손이 심하고 종신 전체에 크랙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종신 표면의 문양이나 문자에 대해서는 별달리 언급하지 않았다. 權赫男·俞惠仙, 「普信閣鐘의 非破壞調査」, 『Conservation Science in Museum』 6(2005), pp. 3-10 참조.

구성 요소		훼손의 흔적
① 전대 복련		
		
③ 종명	사진	
	탁본	

도 3. 보신각종의 인위적 훼손

가 꺾이면서 종이 아래로 처져서 종을 쳐도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여 고쳐 달기에 이르렀다.⁷⁵ 지금도 천판의 동쪽 부분이 구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처져서 동쪽 용두가 서쪽 용두보다 아래로 기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흥천사종, 낙산사종, 봉선사종을 보면 모두 상대와 중대 사이, 연곽과 연곽 사이에 동서남북 각 1구씩의 보살이 서서 합장한 채 종신(鐘身)을 우요(右繞)하는 자세로 양각되어있다. 고려의 범종은 불보살의 좌상이 부조되어 있었는데, 고려 말부터 보살입상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조선 초에 양식적으로 절정에 달하였다. 제작 연대가 분명하면서 보살입상이 장식된 15세기 종은 모두 4구로서, 모두 연화좌 위에 서서 우향(右向)하되, 일체의 지물(持物) 없이 합장인을 하고 있어서 상호를 특정할 수는 없다.⁷⁶ 종소리는 불음(佛音)을 상징하므로, 종이 울릴 때, 즉 부처가 설법하는 동안 보살들이 부처를 우요하며 경배하는 장면을 상징한다. 보신각종의 경우 일찍이 이규경(李圭景)이 1836년에 처음 관찰기를 남긴

75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권34, 人事篇 器用類 鐘漏, 「鍾閣興天大鍾辨證說」, “今上三年丁酉, 淸道光十六年也, 三月旬後, 鍾上追蠹缺折, 漸下垂地, 擊而難鳴, 望後改懸如舊.”

76 崔應天, 「韓國 梵鐘의 特性과 變遷」, 『聖德大王神鍾: 綜合論考集』(국립경주박물관, 1999), pp. 204-207; 최응천, 「한국범종의 특성과 변천」, 『하늘꽃으로 내리는 깨달음의 소리—韓國의 梵鐘 拓本展』(직지성보박물관, 2003), pp. 248-249. 한편 보살의 상호를 관음으로 간주하는 연구자도 있는데, 4구가 모두 동일한 보살상인지는 알 수 없다.

이래,⁷⁷ 희미하게 잔영만 남은 보살입상이 간헐적으로 언급되곤 하였다. 실측은 염영하가 처음 시도하였는데, 윤곽이 잘 남아있는 동면상의 경우 높이가 870mm, 너비가 440mm이다(도 3-②).⁷⁸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삭제한 정도가 고르지 않다. 4면 중에서도 북면과 서면의 보살상은 광배 일부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이 지워졌다. 반시계 방향, 즉 서→남→동으로 갈수록 상의 흔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다. 이것은 종각의 방향 및 타종의 방향과 관련 있다. 고종이 증정한 보신각을 찍은 19세기 후반의 사진을 보면, 보신각은 종로네거리의 동남쪽 모퉁이에 북향하고 있으며, 출입문은 궁궐 쪽인 북면에 있다. 그리고 보신각종은 따로 당좌를 마련하지 않았지만, 쌍룡의 머리가 가리키는 동서향 중에서 종신 서면의 종구 바로 위에 오랜 세월을 걸쳐 타종한 흔적이 잘 남아있다. 즉, 출입하면서 마주치는 북면과 타종하면서 바라보는 서면이 유자들의 시선에 가장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남면, 동면에 비해 북면, 서면의 보살입상이 더 철저하게 지워진 이유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종명을 검토하고자 한다. 종명에는 종에 새겨진 명문이라는 넓은 의미와, 종에 관한 찬시(讚詩)라는 좁은 의미가 있다. 조선 초에 왕명으로 조성된 종에는 한결같이 왕명을 받아 문한관이 찬술한 좁은 의미의 종명[서(序)+명(銘)]이 있다. 이어서 주종에 참여한 종실, 관료, 실무자, 그리고 때로는 공신들의 명단이 새겨졌다. 실물이나 탁본이 남아있는 세조~예종대 종들의 문장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세조~예종대 왕명 주종의 鐘銘 구조

	이름	鐘題	찬자/서자	序	銘	주종 연월	주종 관계자	비고
1	사정전종	○	○	○	○	○	○	初鑄; 1457. 3. 改刻; 1458. 2.
2	용문사종	×	△(御製)	△	×	×	△(발원자)	1459. 11. 이후
3	홍천사종	○	○	○	○	○	○	1462. 10.
4	월각사종	○	△(찬자)	○	○	×	×	1465. 1.
	보신각종	×	×	×	×	○	△(제조 이하)	1468. 2(?)
5	유점사종	○	○(찬자)	△	×	○	△(도제조와 제조)	1469. 3.
6	낙산사종	○	○	○	○	○	○(주종 실무자)	1469. 4.
7	봉선사종	○	○	○	○	○	○(주종 실무자)	1469. 7.

* 문헌, 탁본, 그리고 실물 자료에서 종명 전체를 알 수 있는 것(○), 일부만 알 수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77 이규경은 창살 너머로 종에 ‘佛像(실은 보살상)’이 새겨져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윤종가(보신각종)종이 원래 정릉의 능사인 홍천사의 종이었다고 오인하였다. 반대로 동대문에 방치된 종을 실견하였음에도 이 종이 홍천사종임은 알지 못하였다.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권34, 人事篇 器用類 鐘漏, 「鍾閣興天大鍾辨證說」.

78 廉永夏, 앞의 논문(1981), pp. 37-38.

이와 같이 넓은 의미의 종명은 종제, 찬자/서자, 서, 명, 주종 연월, 주종 관계자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보신각종은 종제, 찬자/서자, 서[즉 발원문], 명에 해당하는 부분이 완벽하게 지워졌으며, 한 글자씩 삭제한 흔적만 남아있다(도 3-③). 삭제된 흔적으로 보아 종제는 종의 서면에서 용두와 타종흔(打鐘痕)을 잇는 수직선상에서 시작한 듯하다. 즉 종의 서면에 용두-보살입상-종제-타종흔이 위에서 아래로 일렬하고 있는데, 용두를 제외하고 불교적 문자와 상징은 철저히 지워졌다. 다만 최항이 지은 종명이 『동문선』에 실려 있어서, 종제[원각사종명(圓覺寺鐘銘)]와 찬자 및 서와 명은 복원할 수 있다.

다행히도 명 다음의 주종 연월은 지우지 않았다. 이어서 주종 관계자의 명단은 도제조(都提調), 제조(提調), 낭청(郎廳), 아전(衙前), 공장(工匠), 사령(使令)으로 구성되는데, 아쉽게도 제일 앞의 도제조는 ‘도제조(都提調)’ 세 글자만 남기고 8행으로 추정되는 명단은 철저히 지워졌다. 그다음의 제조에 해당하는 15행×19자는 30% 정도만 지워지고 나머지는 비교적 잘 남아있으며, 실록 등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삭제된 내용을 복원할 수 있다. 그리고 낭청 이하는 온전히 남아있다. 요컨대, 앞에서부터 삭제가 시작되어 종제, 서, 명, 그리고 도제조까지는 작업을 마쳤으나, 제조는 30% 정도 삭제한 상태에서 어떤 이유로 작업이 중단되면서, 낭청 이하면 온전히 남게 되었다.

사실 도제조 이하는 주종에 참여한 속인들 명단이므로 굳이 삭제해야 할 불교적 상징성은 없었다. 그러므로 도제조 명단을 일괄 삭제한 데에는 벽불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작용하였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보신각종의 제조 명단은 원각사비 음기에 새겨진 조성도감(造成都監)의 제조 명단과 거의 일치한다. 원각사비의 제조 11명 중에서 수석인 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이 보신각종 제조 11명에서 빠진 대신, 원각사비 제조에 보이지 않던 서거정(徐居正)이 보신각종 제조의 말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몇몇 인물은 관직 이동에 따라 직함과 서열에 변동이 생겼으며, 김국광(金國光)과 한계미(韓繼美)는 직함에 새로 받은 ‘적개공신(敵愾功臣)’의 호가 추가되었다.

원각사비는 1471년(성종 2)에 세워졌는데, 애초에 세조가 1465년 원각사를 창건하면서 세우고 명령한 사적비이므로, 음기에 새겨진 인물들의 직함은 1465년경의 시대상을 반영한다. 일례로 노사신의 관계는 원각사비의 정헌대부(正憲大夫, 정2품 상)에서 보신각종의 숭정대부(崇政大夫, 종1품 하)로 승급되었다. 1465년은 원각사의 운뢰각에 걸고자 원각사종을 처음 주조한 해이기도 하다. 물론 지금의 보신각종은 3년 동안의 변화를 반영하여 원각사종을 개조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조의 인물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도제조도 직함만 바뀌었을 뿐 인물은 거의 그대로였다고 생각된다.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따라서 보신각종의 도제조는 원각사비의 도제조 7인을 바탕으로 추정 복원할 수 있다. 다만 1467년 3월에 사망한 영웅대군이 빠지는 대신 종친 가운데 이시애의 난에서 공을 세워 적개공신의 호를 받은 귀성군(龜城君) 준(浚)과 영순군(永順君) 부(溥)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1467년 우의정에 오른 홍윤성은 위계를 고려하여 원각사비의 제조에서 보신각종의 도제조로 옮겼다. 현재로서는 이들 8인이 보신각종에서 삭제된 도제조로 가장 유력시된다.

표 4. 원각사비와 보신각종의 도제조와 제조 명단

	원각사비(1471)	보신각종(1468)
도 제 조	孝寧君 補	孝寧大君 補
	臨瀛君 璆	臨瀛大君 璆
	永膺君 琰	
	靖難功臣 領議政 高靈府院君 申叔舟	靖難功臣 高靈府院君 申叔舟
	靖難功臣 判兵曹事 上黨府院君 韓明澮	靖難功臣 上黨府院君 韓明澮
	佐翼功臣 左議政 綾城府院君 具致寬	佐翼功臣 綾城府院君 具致寬
		佐翼功臣 右議政 仁山君 洪允成
		敵愾功臣 龜城郡 浚
	興祿大夫 永順君 溥	敵愾功臣 永順君 溥
제 조	佐翼功臣 判中樞府事 仁山君 洪允成	
	崇德大夫 青城尉 沈安義	光德大夫 沈安義
	崇政大夫 知中樞府事 金漑	崇政大夫 行中樞府知事 金漑
	崇憲大夫 銀川君 李穡	崇憲大夫 銀川君 李穡
	崇憲大夫 玉山君 李躋	崇憲大夫 玉山君 李躋
	佐翼功臣 右參贊 茂松君 尹子雲	佐翼功臣 義禁府判書 茂松君 尹子雲
	正憲大夫 同知中樞府事 金國光	敵愾功臣 左贊成 光山君 金國光
	佐翼功臣 商山君 黃孝源	佐翼功臣 商山君 黃孝源
	佐翼功臣 禮曹判書 原城君 元孝然	佐翼功臣 原城君 元孝然
	佐翼功臣 西原君 韓繼美	佐翼敵愾功臣 右贊成 西原君 韓繼美
	正憲大夫 戶曹判書 盧思愼	崇政大夫 行戶曹判書 盧思愼
		資憲大夫 中樞府知事 徐居正

* 보신각종의 도제조 명단(이탤릭체)은 원각사비의 도제조를 바탕으로 추정하였음.

보신각종의 제조 명단은 원각사비 제조 명단에 맞추어 순서를 조정하였음.

3. 연산군대 ‘불교지우기’의 이념, 벽불(闕佛)

1) 쓸모없는 범종의 쓸모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역성혁명은 불교에서 유교로의 문화혁명을 동반하였다. 성리학의 이념으로 무장한 역성혁명파는 고려 왕조가 숭배한 불교에 고려조 멸망의 책임을 물어서, 전 왕조의 숭불책(崇佛策)을 폐기하는 데서 나아가 강력한 탈불교화 노선을 추구하였다. 세조대와 명종대의 일시적인 반동이 있기는 하였으나, 탈불교화는 조선 전기 내내 국정 운영의 기본노선이었다. 이 시기에 불교는 유자들로부터 거친 공격을 받았다. 과거의 영광스런 불교 유산은 더 이상 체제 유지에 쓸모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유자들은 쓸모없는 불교 유산을 폐기하거나 새로운 용도에 맞게 재활용하였다.

‘불용지용(不用之用)’이야말로 조선 전기 탈불교화의 실용적인 면모를 잘 보여준다.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범종을 활용한 세 가지 방식이었다. 첫째는 범종을 대일 교섭의 외교적 카드로 사용한 것이다. 즉 조선 초에 주된 현안이었던 왜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이 원하는 그러나 조선으로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범종을 외교적 선물로 적극 활용하였다. 그 결과 세종 5년(1423) 무렵에는, 일본의 중앙과 지방에서 다투어 구해가는 바람에 더 이상의 요청을 들어줄 종이 남아나지 않게 되었다.⁷⁹ 당시 범종은 대장경과 더불어 전조가 남긴 쓸모없는 물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대일 교섭에서 조선이 쥐고 있던 가장 쓸모있는 카드였다.

둘째는 다수의 범종을 녹여서 다른 용도로 재활용한 방식이다. 예컨대 총통 주조에는 발사 시의 폭발력을 견디는 순도 높은 구리가 필요하였는데, 최고의 공급원이 바로 범종이었다. 일찍이 태종이 혁파된 절의 종을 녹여 총통을 주조한 이래,⁸⁰ 조정에서 범종을 녹여 총통을 주조하자는 건의가 종종 있었으며, 적지 않은 경우가 실행되었다. 또한 범종은 화폐의 소재로서도 더없이 적합하였다. 예컨대 세종은 자신이 혁파한 다수의 지방 사원이 갖고 있던 범종을 거두어서 동전을 주조하는 데 재활용하였다.⁸¹

셋째가 범종을 조종으로 재사용한 방식이다. 세종은 경주 봉덕사종과 개성 연복사종이 각각 통일신라와 고려를 대표하는 범종이라는 점에서 두 종을 온전히 보존토록 명하였다.⁸² 이 중에서 봉덕사종은 절이 북천(北川)에 침몰하자, 세조 6년(1460)에 경주부윤 김담(金淡)이 영묘사(靈妙寺) 옆에 옮겨 달았다.⁸³ 그리고 영묘사마저 화재로 폐사되자 경주부윤 예춘년(芮椿年, 1506. 1.~1507. 12. 재임)이 읍성 남문 앞 봉황대에 종루를 세워 종을 옮겨 달고 성문을 여닫는 시간을 알리도록 하였다.⁸⁴ 개성의 연복사종 또한 명종 18년(1563)에 연복사가 소실되자 개성 남대문의 문루로 옮겨 걸었다.⁸⁵ 이로써 통일신라와 고려를 대표하는 범종 2구는 16세기에 원형을 유지한 채 폐사지에서 읍성으로 옮겨져서 각각 경주와 개성의 주민들에게 시각을 알리는 조종으로 재사용되었다.

원각사종은 바로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원각사종은 재사용하기에 앞서 불교적 상징과 문자가 철저하게 지워졌다.

79 『세종실록』 권19, 세종 5년 1월 28일(경술).

80 『세종실록』 권23, 세종 6년 3월 16일(임진).

81 『태종실록』 권29, 태종 15년 3월 15일(계축).

82 『세종실록』 권24, 세종 6년 5월 3일(정축).

83 金時習, 『奉德寺鍾』(『梅月堂詩集』 권12, 遊金鰲錄);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 慶州府 古蹟 奉德寺鍾.

84 『東京雜記』 권2, 古蹟 奉德寺鍾. 한편 <府尹先生案>에서는 ‘芮忠年’이 1506년 정월 11일 부임하고 이듬해 12월 27일 傷寒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였다.

85 車天輅, 『五山說林草藁』(『大東野乘』 권5), “高麗王氏, 事佛甚謹, 城中名利三百, 演福寺最大, 五層殿高出天, 有若靈光巋然獨存. 李公健爲留守時 爲迎弔命捕鳩, 鳩官人炬其上取之, 燼落火起. 癸亥年 余纔八歲, 尙記火焰 夜迫半天.”

2) 숭불(崇佛)에서 벽불(闕佛)로

숭불의 군주 세조는 1463년 10월 종친과 문무고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세자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다.

내가 부처를 숭상하지 않은 것이 아니어서, 寺社 영건도 적지않이 하였다. 그러나 이는 다 부질없다. …

…너는 네 아버가 부처를 숭상한 것을 죄다 본받을 필요는 없다.⁸⁶

이는 세조의 사후에 숭불책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뿐더러, 원각사종에 모종의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고한 셈이다.

과연 예종 원년(1469) 6월에 공조판서 양성지(梁誠之)는 상소문에서 앞으로 인정과 파루는 종루종만 치고 도성 내의 사찰 중은 치지 말 것을 건의하였다.⁸⁷ 성종대에는 김종직을 필두로 사림파들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벽불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런 가운데 1470년(성종 1)에 세조의 공신인 구치관(具致寬)이 음양오행설에 근거하여 원각사종 타종을 불허할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하였다.⁸⁸ 구치관의 제안에 신숙주가 적극 동조하였으며, 성종의 명으로 옛 문헌을 상고한 예문관은 구치관과 신숙주의 타종 반대 논리를 보강하였다. 첫째는 금극목(金克木)의 오행상극설인데, 이 논리는 나중에 김안로(金安老)의 반대파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둘째는 종소리가 너무 클 뿐 아니라 끊어질 듯 이어지는 맥놀이가 상스럽지 못하다는 시종의 부정적 여론이었다. 한국종에 고유한 맥놀이조차 유신들에게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요사스럽게 만드는 소리로 간주되었다.⁸⁹ 결국 그해 9월 성종은 구치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인정과 파루 때 원각사종을 치지 말되, 불사(佛事) 때에만 미리 아뢴 다음 치도록 명하였다.⁹⁰

이처럼 조정의 분위기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숭불에서 벽불로 급변하였다. 「원각사종명」의 찬자 최항은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문집 『태허정집(太虛亭集)』에는 그가 1473년(성종 4) 가을 기로회원으로서 성종의 국정 자문에 답한 「기영회기(耆英會記)」에 이어 제목이 없는 장문의 자문자답이 한 편 실려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성리학은 정통, 불교는 이단’이라고 전제한 다음, ‘사도(斯道)와 이단(異端)은 양립(兩立)이 불가(不可)하니, 사도를 부양하고 이단은 물리쳐야 함’을 힘써 주장하였다.⁹¹ 그래서 그런지 『태허정집』에 그의 「원각사종명」은 실리지 않았다.

86 『세조실록』 권31, 세조 9년 10월 11일(병신).

87 『예종실록』 권6, 예종 1년 6월 29일(신사).

88 『성종실록』 권2, 성종 1년 1월 11일(경인).

89 『성종실록』 권2, 성종 1년 1월 11일(경인).

90 『성종실록』 권7, 성종 1년 9월 14일(기축).

91 『太虛亭集』 권3, 32장 右 2행~36장 右 1행.

3) 연산군의 원각사 폐사와 원각사종 지우기

보신각종에서 지워진 내용이 불교적 상징내지 문자라는 사실은, ‘불교지우기’의 이념적 배경이 벽불론이었음을 뜻한다. 벽불론과 거기에 따른 폐불책은 연산군~중종대에 절정에 달하였다.⁹² 그런데 한명회(韓明澮)가 포함된 도제조 명단을 삭제한 것은 벽불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이념적 공격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다. 그런데 이념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둘 다 충족된 때는 연산군대로 좁혀진다. 그중에서도 갑자사화가 일어난 1504년(연산군 10) 3월부터 중종 반정이 일어난 1506년(연산군 12) 9월까지의 2년은 가장 주목할 만하다.

한명회야말로 보신각종의 도제조로 추정되는 8인 중에서, 1479년(성종 10) 6월 왕비 윤씨를 폐서인할 때와 1482년(성종 13) 8월 폐비 윤씨를 사사할 때, 두 차례 모두 관여한 유일한 인물이다. 비록 논의 과정에서 그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이었지만, 연산군은 1504년 3월 갑자사화를 일으켜서 두 사건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자들은 무자비하게 단죄하였다. 한명회는 이미 사망하였음도 불구하고, 연산군은 그를 부관참시하여 저자에 효수하고 세조의 묘정(廟庭)에서 축출하였다.⁹³ 그런 한명회가 보신각종 도제조 명단에 올라 있었기에, 연산군이 불교와 무관한 도제조 명단까지 삭제토록 한 것이 아닌가 한다. 반대로 중종은 반정 직후에 한명회를 신원하였으므로, 중종이 보신각종에서 도제조 명단을 굳이 삭제할 이유는 없었다. 따라서 보신각종의 불교 관련 문자와 상징을 삭제한 시기는 연산군이 원각사 철폐를 강력하게 추진하던 1504년 7월 무렵으로 좁혀진다. 즉, 원각사 철폐와 동시에 육시에불(六時禮佛)을 위한 원각사종이 쓸모없게 되자, 범종의 불교적 상징과 문구를 철저히 지워 버린 것이라 하겠다.

연산군은 갑자사화를 일으켜 비판세력을 숙청하고 절대왕권을 구축하였으며, 차츰 권력에 도취하여 무절제한 향락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유흥을 일삼던 창덕궁 후원의 담장 너머에 성균관이 있었기에, 성균관 유생들의 이목을 불편해 하였다. 그는 내심 성균관을 철거하고 싶었지만, 유자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세조 사후부터 유자들이 그토록 원하였던 원각사 철폐를 성균관 이전과 한데 묶어서 제안하였다. 마침내 그해 7월 연산군은 성균관의 원각사 이전을 명하였다.⁹⁴ 즉 원각사의 불상을 내치고 그곳에 성균관의 공자 신위를 옮기는 승유억불로 위장하였던 것이다.

승불의 군주 세조가 창건한 원각사를 ‘사도(邪道)의 사찰’에서 ‘정도(正道)의 반궁(泮宮)’으로 개조하자는 연산군의 제안은 유신들조차 예상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전격적이었다. 결국 군신 간에 몇 차례 논의가 오간 끝에 연산군은 이번에도 전격적으로 성균관 이전을 없던 일로 하였다.⁹⁵ 비록 원각사의 유교화는 철회하였지만, 원각사의 탈불교화는 계속 밀어부쳐서 그해 연말 승도를 절에서 축출하

92 세조 사후 배불 논의와 배불책에 대해서는 이봉춘,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서울: 민족사, 2015), 제2부 배불의 강화와 고착을 참조.

93 『연산군일기』 권52, 연산군 10년 4월 24일(기유); 권53, 연산군 10년 5월 11일(경자).

94 『연산군일기』 권54, 연산군 10년 7월 10일(무술).

95 『연산군일기』 권54, 연산군 10년 7월 11일(기해).

였다.⁹⁶ 이로써 원각사는 창건된 지 40년 만에 철폐되었으며, 원각사종은 개주된 지 불과 37년 만에 범종으로서의 역할이 끝났다.

연산군은 갑자사화 이래 말년으로 갈수록 법과 관행을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이미 내린 명령을 변덕스럽게 번복하였다. 그 결과 원각사 폐사에 관한 기록도 착종되거나 심지어 누락되어서, 폐사의 구체적인 경과는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원각사는 사찰로서의 기능만 정지시켰을 뿐, 건물은 비워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본존불상은 예조가 맡아서 내치도록 하였는데, 회암사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⁹⁷ 〈원각사13층석탑〉은 이전하고자 해체에 착수하였는데, 최상부 3개층을 지상으로 끌어내린 상태에서 작업이 중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504년(연산군 10)에 도성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 탑의 최상층부를 지상으로 내렸다는 속설은,⁹⁸ 당시의 분위기를 엿보게 한다. 그리고 무게 20톤에 달하는 원각사종[보신각종]은 회암사로 이전하기에 너무 무거웠기에, 이전하는 대신 불교 관련 문자와 상징을 남김없이 지워버렸다.

한편 홍천사종 또한 세조의 왕명으로 조성하여 도성 안 사찰에 봉안한 범종이라는 점, 연산군대 유생들의 방화로 절이 폐사되면서 오래 방치되었다는 점, 중종대 김안로가 조종으로 사용하고자 성문[동대문]으로 이전한 점 등에서 원각사종과 그 성격 및 내력이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사종은 원각사종과 반대로 지금까지 범종으로서의 원형을 잘 간직해오고 있다. 만약 원각사종의 불교지우기가 중종대 벽불론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홍천사종의 예외를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태생이 같은 두 종의 상반된 결과는, 원각사종의 불교지우기가 연산군대의 갑자사화와 그 직후에 있었던 성균관의 원각사로의 이전 논의 및 원각사의 폐사를 배경으로 하였음을 방증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원각사종에서의 ‘불교지우기’는 갑자사화 이후부터 중종반정 사이의 연산군 만년에 벽불(闢佛)의 명분 하에 원각사에서 단행된 탈불교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IV. 범종[부처의 소리]에서 조종[임금의 소리]으로

여기서는 조선 후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원각사종의 내력을 살펴볼 것이다. 내력에 대해서는 기왕에도 몇몇 선학들이 주목한 바 있는데,⁹⁹ 본고는 기존의 이해에서 나아가 소리의 상징성에 초점을 맞추어 시기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96 『연산군일기』 권56, 연산군 10년 12월 26일(임오).

97 「대원각사비」에 따르면, 원각사의 중심 법당은 ‘大光明殿’이며, 본존상은 세조 10년 6월에 조성하였다고 한다.

98 원각사탑의 최상부 3개층이 지상으로 내려진 것과 관련하여 속설만 부분한데, 그중에서 연산군 10년설이 가장 주목된다. 李相佰, 『圓覺寺始末考』, 『郷土서울』 2(1958), pp. 107-110 참조.

99 李重華, 앞의 논문(1931), pp. 113-126; 金永上, 앞의 논문(1979); 반재식, 앞의 책(1998), pp. 1-157.

1. 중종대 남대문으로의 이전과 침묵 당한 부처의 소리

1) 중종대의 벽불론과 벽불책

반정을 일으켜 즉위한 중종은 연산군대의 폐정을 성종대로 원상회복시키면서도 연산군의 벽불책 만큼은 그대로 견지하였다. 1506년(중종 1) 10월에는 원각사의 재건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유신들의 여론에 따라 재건하지 않겠다는 교서를 내렸다.¹⁰⁰ 한동안 중종은 선왕들의 유업을 계승하여 원각사를 재건해야 한다는 대비와, 불교는 이단이므로 물리쳐야 한다는 유신들 사이에서 ‘치지도외(置之度外)’의 절충을 꾀하였다. 그런데 중종대 다시 조정에 진출한 사림파가 도학정치를 추구하면서 벽불론은 더욱 고조되었으며, 유신들은 원각사의 폐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원각사의 재건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를 잇달아 취하였다. 1512년(중종 7)에는 원각사지의 도면을 작성한다든가 비어있는 터를 사대부들에게 불하하기로 결정하였다.¹⁰¹ 이로써 원각사의 재건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물론 강경한 유자들은 1519년(중종 14)에 발본색원의 차원에서 「대원각사비」마저 무너뜨리길 원하였으나, 중종은 원각사가 이미 폐사되었으므로 원각사비의 존재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이유에서 허락하지 않았다.¹⁰² 중종대 탑을 양주 회암사로 이전하기 위해 해체하다 중지하였다는 속설은¹⁰³ 이때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중종은 역대 군주들 중에서도 엄정한 벽불책을 실행한 왕이었다.¹⁰⁴ 그의 입장은 12년(1517) 어린 왕세자[인종]에게 준 계잠(戒箴)에서, “삿된 것을 힘써 제거하고, 이단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한 데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¹⁰⁵ 나중에 그는 자전(慈殿)의 불사를 간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자신은 성정이 부처를 좋아하지 않아서 30여 년 동안 산사에 향 한 번 내린 적이 없노라며 결백함을 주장하였다.¹⁰⁶

특히 주목할 것은 조광조가 도학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하던 중종 13년에 있었던 불교 관련 악장(樂章)의 개혁이었다. 처용무 중에서 영산회상과 본사찬(本師讚)·미타찬(彌陀讚)은 세조 때 지었는데, 가사가 이단[불교]적 색채가 짙기에 남곤(南袞)이 유교식으로 고쳐 지은 수만년사(壽萬年詞)와 중흥악사(中興樂詞)로 대체하도록 하였다.¹⁰⁷ 일찍이 세종이 처용무와 가사를 조정의 정악(正樂)으로 삼았으며, 세조는 6년(1460) 이를 확대하여 처음으로 영산회상곡(靈山會

100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10월 15일(경신); 동 10월 16일(신유).

101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7월 30일(신축); 동 8월 11일(임자).

102 『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6월 21일(계미).

103 李能和, 『朝鮮佛敎通史』下(京城: 新文館, 1918), p. 712.

104 高橋亨, 『李朝佛敎』(東京: 實文館, 1929), pp. 270-299; 이봉춘, 앞의 책(2015), 제3장 중종대 배불정책과 그 성격.

105 『중종실록』 권27, 중종 12년 4월 13일(무오).

106 『중종실록』 권91, 중종 34년 6월 9일(을사).

107 『중종실록』 권32, 중종 13년(1518) 4월 1일(기사).

上曲)과 연화대무(蓮花臺舞)를 만들어 크게 합주토록 하였다.¹⁰⁸ 본사찬과 관련해서 흥천사종명에는, 세조 7년 여름 회암사에서 석가사리가 잇달아 분신하는 이적이 일어나자 세조가 친히 가타(伽陀)를 지어서 관현악에 입혔다고 전한다.¹⁰⁹ 가타는 범어 gāthā의 음사로서 계(偈)라고도 하는데, 부처의 설법 또는 불보살의 공덕을 찬미한 시를 말한다. 세조가 지은 가타는 본사(本師)인 석가여래의 사리 분신을 찬미한 것이므로, 중종이 남곤으로 하여금 고치게 한 바로 그 본사찬이라 하겠다.

2) 중종대 원각사종의 남대문 이전

중종은, 세조가 직접 찬술하였든 아니면 세조의 명으로 조성하였든 간에, 이단[불교]의 색채가 뚜렷한 것은 변개(變改)토록 하였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원각사종이 다시 조정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보다 앞서 1512년(중종 7) 폐사된 흥천사와 흥덕사의 대종을 녹여서 총통을 주조하기로 하였지만,¹¹⁰ 대비전에서 그릇 주조에 쓰겠다는 핑계로 내수사로 옮겨가는 바람에 실행하지는 못하였다.¹¹¹ 폐사에 방치된 대종 처리를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1536년(중종 31) 4월 김안로가 실용적인 안을 제시하였다.

보루각도제조[金安老]가 아뢰었다. “종루 위에 종을 거는 것은, 이를 쳐서 인정[暮鍾]과 파루[曉鍾]로 삼아 원근의 사람들로 하여금 시각에 맞춰 일하고 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종루의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 흥인문과 승례문에 각각 하나씩 걸어서 친다면, 종소리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정릉사[흥천사]와 원각사의 두 폐사의 옛 종이 아직도 버려진 채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두 종을 하나는 흥인문에 걸고 하나는 승례문에 걸되, 후자는 경복궁 보루에서부터 타종을 전하여 승례문에 이르게 하고, 전자는 창경궁에 신설한 보루에서부터 타종을 전하여 흥인문에 이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¹¹²

김안로는 1531년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서용된 이래 동궁[인종]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차츰 실권을 장악하여 도총관(都總管), 예조판서, 대제학, 이조판서, 우의정을 거쳐 1535년에는 좌의정에까지 올랐다. 그 과정에서 반대파는 물론 뜻을 달리하는 자들도 가차 없이 제거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배되거나 죽임을 당하였다. 1536년 4월 무렵은 그가 한창 기세등등할 때로서 중종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6월에는 두 종을 걸 준비를 마쳤으며, 가뭄의 조짐으로 일시 중단한 작업을 7월에 재개

108 李能和, 『朝鮮佛教通史』上(京城: 新文館, 1918), p. 410.

109 『興天寺新鑄鐘銘 并序』, 『朝鮮金石總覽』下, p. 740.

110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6월 22일(갑자).

111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6월 23일(을축).

112 『중종실록』 권81, 중종 31년 4월 9일(계사).

하였다.¹¹³ 그 후 종각에 종을 걸어 타종도 해보았는데, 종루종까지 포함하여 3구의 대종이 한꺼번에 도성을 울리는 바람에 시보(時報)에 혼란을 초래하자, 결국 타종은 중지되었다.¹¹⁴

더욱이 김안로는 이듬해 문정왕후(文定王后)의 폐위를 기도하다 발각되었으며, 그해 10월 체포되고 곧바로 사사되었다.¹¹⁵ 김안로가 패사하자, 중종은 그가 건의한 정책을 폐정이라 선언하고 개혁에 착수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흥천사종과 원각사종을 각각 동대문과 남대문에 걸어서 타종하자는 김안로의 계책이었다. 중종이 생각하기에, 김안로가 당시의 시대 정신인 벽불(闢佛)을 위해서 패사지에 방치된 원각사종을 남대문으로 옮겨 인정과 파루 때 타종하자고 건의한 것은 아니었다.¹¹⁶ 당연히도 원각사종과 흥천사종을 남대문과 동대문에 걸어 타종하자는 김안로의 정책은 철회되었다. 다만 이미 옮겨진 두 종을 원위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두 종을 각각 남대문과 동대문의 한쪽에 방치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반대파는 진작부터 음모론을 제기하며 두 대종의 폐기를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정릉의 종은 남대문으로, 원각사의 종은 동대문으로’와 같이 사실을 정반대로 기술하는 실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¹¹⁷

1555년(명종 10)에 비변사가 다시 한번 원각사종으로 총통을 주조하자고 건의하였지만, 수렴청정 하던 문정왕후가 오래된 물건은 부술 수 없다며 거부하고 대신 내수사가 갖고 있던 질 좋은 구리를 내주었다. 주지하다시피 명종대는 문정왕후가 불교부흥운동을 추진한 시기였다. 유신들이 총통 주조론을 꺼내자 왕실은 내수사로 옮기고자 하였으며, 여기에 유신들이 의구심을 드러내는 등, 한동안 밀고당기는 사이 종은 남대문에 그대로 방치되었다.¹¹⁸ 그런데 이번에도 『명종실록』의 관련 기사에 첨부된 사론(史論)은, 오행상극설의 관점에서 김안로의 건의가 불순한 의도에서 나왔다고 공격하면서, ‘남대문의 큰 종은 본래 정릉(貞陵) 원각사(圓覺寺)의 것’이라 하여,¹¹⁹ 사실 파악에 혼선을 빚었다.

이처럼 김안로의 건의로 원각사종이 원각사에서 남대문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그가 패사하면서, 이때부터 종은 남대문 풀술에 60년 가까이 장기간 방치되었다. 게다가 남대문종의 출처를 알려주는 종명(鐘銘)이 이보다 오래 전에 삭제되었기에,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당시의 집권세력은 남대문으로 옮겨진 대종이 원래 ‘정릉사’ 또는 ‘정릉 원각사’에 있었다고 오인하기 시작하였다.

113 『중종실록』 권82, 중종 31년 7월 14일(정묘); 동 8월 20일(계묘).

114 『중종실록』 권85, 중종 32년 10월 28일(갑술).

115 『중종실록』 권85, 중종 32년 10월 24일(경오); 동 10월 27일(계유); 『국조보감』 권20, 중종 32년 10월.

116 주 113과 같음.

117 『중종실록』 권95, 중종 36년 6월 1일(병진), “丙申年 移貞陵之鍾于南大門, 移圓覺寺之鍾于東大門構閣懸鍾.”

118 『명종실록』 권29, 명종 18년 11월 18일(계사).

119 『명종실록』 권18, 명종 10년 5월 23일(병진); 권18, 명종 10년 5월 25일(무오).

2. 선조~광해군대 임금의 소리로의 재탄생

1) 선조대 남대문에서 명동 고개로

원각사종은 오랜 침묵 끝에 범종에서 조종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 그때는 임진왜란이 소강 상태에 들어간 16세기 말이었다. 1593년(선조 26) 4월 강화 조약이 맺어지면서 일본군이 한양에서 철수하고 명군이 입성하였다. 그리고 그해 연말 선조가 환도하여 월산대군의 집(지금의 덕수궁)을 행궁으로 삼고 전란으로 파괴된 한성을 복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임진왜란 발발 초기에 종루종을 포함하여 선초(鮮初) 4대에 걸쳐 조성한 조종 4구가 하나같이 병화로 파괴되고 말았다. 결국 선조는 1594년 11월 무렵부터 인정과 파루 때 종루종을 대신하여 남대문에 방치되어 있던 원각사종을 타종하도록 하였다.¹²⁰

원각사의 범종은 1504년 원각사 폐사로 타종이 멈춘 지 90년 만에, 남대문에서 조종으로서 다시 도성민들에게 시각을 알리게 되었다. 전란으로 전국이 폐허해진 당시로서 새로운 조종의 주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에, 방치해 둔 범종을 조종으로 재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한 조치였다. 이를 계기로 종소리는 부처의 소리에서 임금의 소리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그 후 정유재란이 발발하면서 명나라 군대가 재차 한성에 진주하였다. 명군의 경리(經理) 양호(楊鎬)는 1598년(선조 31) 2월 남대문의 종을 그가 주둔하던 명례동(明禮洞) 종현(鐘峴)으로 옮겨 달고 5월부터 전례에 따라 인정과 파루에 타종하도록 하였다.¹²¹ 임진왜란이 끝나고 명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한동안 종은 명례동 고개에 그대로 남겨졌다.

2) 광해군대 명동 고개에서 종루[보신각]로

이 종을 명동 고개에서 지금의 종로로 옮겨 달고 다시 타종을 시작한 때는 광해군대였다. 1619년(광해군 11) 4월 종루를 속히 증건하고 금종(金鐘)을 걸라고 명하였는데, 전쟁 직후라 물자가 부족하여 종루를 증건하는 대신 종각을 개조하였다.¹²² 그런데 불과 7일 후에 어물전 앞 행랑에서 화재가 일어나 종각까지 불타고 금종이 땅에 떨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났다.¹²³ 그래서 종각 옛터에 종루를 재건하도록 명하였는데,¹²⁴ 종루가 언제 재건되어서 종을 타종하기 시작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1621년(광해군 13) 8월 기사에 '종루'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늦어도 이 무렵에는 종루가 완공된 듯하다.¹²⁵

120 『선조실록』 권55, 선조 27년 9월 18일(계사); 동 권57 선조 27년 11월 4일(무인). 한편 선조가 환도하고 나서 남대문종을 종루에 걸었다는 문헌 기록도 있지만, 실록 기사로 보아 착오임이 분명하다.

121 『선조실록』 권97, 선조 31년 2월 19일(갑술); 권100, 선조 31년 5월 14일(무술).

122 『광해군일기』 권139, 광해군 11년 4월 14일(정묘).

123 『광해군일기』 권139, 광해군 11년 4월 21일(갑술).

124 『광해군일기』 권139, 광해군 11년 4월 25일(무인).

125 중초본 『광해군일기』 권57, 광해군 13년 8월 18일(정해).

이때부터 원각사종은 종루종(또는 운종가종)이자 조종으로서 매일 새벽에 28번, 저녁에 33번씩 규칙적으로 울림으로써 성문의 개폐 시각을 알렸는 바, 그 국가적 중요성은 봉수 다음이었다.¹²⁶ 종 이 맑을 흘린다든가 하는 이상 현상은 국가나 왕실의 흉조로 간주되었다.¹²⁷ 조종은 신민들의 일상을 규율하는 임금의 목소리를 상징하므로, 병조로 하여금 병사를 배치하여 함부로 종을 치지 못하게 하고 화재등의 위험으로부터 종을 지키도록 하였다.

조선 후기에 도시가 성장하면서 상가와 인접한 종루는 화재를 피할 수 없었다. 1685년(숙종 11) 정월에 화재가 일어나 종각을 개수하였는데,¹²⁸ 이때 2층 종루에서 단층의 종각으로 구조가 바뀐 듯 하다. 그로부터 약 180년 지나서 1864년(고종 1) 4월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다행히 종은 무사하였으나 종각은 전소되었다.¹²⁹ 그래서 다시 종각을 지어서 인정과 파루 때 타종하기로 하였다.¹³⁰ 덧붙 이자면 인정(人定)을 서울 지방 방언으로 ‘인경’이라 발음한 데서 시중에서는 운종가종을 즐겨 ‘인경’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온갖 풍상에도 불구하고 운종가종은 조선 후기 250년 동안 조종으로서 한양 도성 주민들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19세기 후반 근대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종에도 근본적인 변화의 바람이 닥쳐왔다. 대원군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직후인 1871년 여름 척화비를 전국 주요 도시의 가두에 세우게 하였는데, 그중의 하나가 종각 앞에 세워졌다.¹³¹ 이 척화비는 1894년 갑오개혁 때 군 국기무처에 명하여 폐기토록 하였는 바,¹³² 시중에는 보신각종의 종구 바로 아래 움통에 파묻었기에 종소리가 약해졌다는 풍문이 돌았다.¹³³

본격적인 변화는 구미 열강과 차례로 수교하는 1880년대부터였다. 1884년(고종 21) 윤5월 20일부터 인정과 파루에 더하여 오정(午正)에도 종각종 타종과 병행하여 창덕궁 금천교에서 방포(放砲)를 시행토록 하였다.¹³⁴ 또 당시까지는 종각 고유의 이름이 없었는데, 1895년(고종 32)에 종각을 증건한 다음 ‘보신각(普信閣)’이라 사액함으로써, 비로소 보신각종이라 불리게 되었다.¹³⁵ 마침내 그해 9월

126 『정조실록』 권16, 정조 7년 8월 2일(신유), “(雲鍾)街鍾之設, 所以警昏曉之作息, 定城門之開閉, 有國之所重, 亞於烽燧, 故撾擊有定時, 晨夜有定數.”

127 『凝川日錄』 권3, 정묘년 11월 18일. *조선 중기의 문신 朴鼎賢(1561-1637)이 朝報와 疏草 등을 모아 등록한 책으로, 『大東野乘』 권44~55에 수록되어 전함.

128 『숙종실록』 권16, 숙종 11년 1월 9일(기사); 동 11년 1월 11일(신미).

129 『고종실록』 권1, 고종 원년 4월 20일(경인).

130 『고종실록』 권1, 고종 원년 5월 24일(계해).

131 『고종실록』 권8, 고종 8년 4월 25일(갑신), “時, 立斥和碑于鐘路街上及各都會地.”

132 『동아일보』1931. 2. 24.(화) 6면 「韓末秘史 最後六十年遺事」 6.

133 『동아일보』1924. 6. 25.(수) 3면 「鍾路鍾閣」.

134 『承政院日記』2924책 41면b, 고종 21년 윤5월 20일(계해).

135 靑靑, 앞의 글(1929), p. 75, “현재 보신각은 李太王 6년 己巳에 종로에 큰 화재가 잇서 燒火된 후 그해 10월 28일에 증건한 것이니, 그 上樑文은 鄭基世가 撰하고 書는 金大振의 筆이오, 普信閣 3자는 최근 李太王 32년 3월 15일에 揭하였스니 海崗 金圭鎭의 筆이다.” 이는 한국전쟁으로 불타버린 보신각 현판에 대한 중요한 증언이다.

29일을 기하여 종과 북으로 인정과 파루를 알리던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오정과 자정에 타종과 방포를 병행하되,¹³⁶ 오정의 타종 횟수는 12번으로 줄였다.¹³⁷ 이는 전철이 개통되면서 인정에 맞추어 성문을 닫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구식 태양력이 시행되고 시계가 보급되었다. 미국인 여행가 버튼 흄즈는 자신이 1901년 8월 서울을 방문하였을 때, 이미 보신각종 소리는 거의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¹³⁸

마침내 일제의 한국통감부는 1908년 4월 1일자로 「통감부령 5호」를 내려 보신각종의 타종을 중단시켰다.¹³⁹ 이로써 임진왜란의 병화로 파괴된 종루종을 대신하여 1594년 연말부터 조종의 역할을 수행해 온 지 실로 300여 년 만에 이 종은 조선왕조와 함께 역사에서 퇴장하였다.

V. 맺음말

보신각종은 최후의 호불군주 세조가 즉위 10년을 맞이하여 한양 도성 한복판에 원각사를 건립하면서 그곳에 봉안하고자 1468년에 조성한 범종(梵鐘)이었다. 보신각종의 제원은 전고(全高) 3.18m, 구경(口徑) 2.28m, 무게 20톤(추정)으로서, 조선시대에 주조된 종 가운데 가장 클 뿐 아니라, 통일신라의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 771) 및 고려의 연복사종(演福寺鍾, 1346)과 더불어 현존하는 한국종 가운데 3대 거종(巨鐘)으로 손꼽힌다. 그런데 보신각종은 세 종 중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두 종에 비하여 타종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많이 훼손되었다.

필자는 본고에서 보신각종에 가해진 인위적 훼손에 주목하여, 누가, 언제, 왜 훼손하였으며, 그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제1장에서는 관련되는 선행 연구성과를 검토하여 필자의 문제의식과 연구 관점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가장 주된 논점인 보신각종과 원각사종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학설사를 검토하여, ‘보신각종=원각사종’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세조가 원각사종을 조성하게 된 배경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선 초에 왕명으로 조성한 종들을 조종(朝鍾)과 범종(梵鐘)으로 나눈 다음, 조종 4구—태조의 종루종, 태종의 돈화문종, 세종의 광화문종, 세조의 사정전종—와, 범종 3구—세조의 용문사종, 홍천사종(또는 정릉사종) 및 원각사종—를 만든 시기순으로 개관하였다. 이를 통하여 세조가 만년에 원각사종을 주조하

136 「宮內勅令存案」 제1책, p. 38, 開國 504년 9월 29일 布達 제4호; 『고종실록』 권33, 고종 32년 9월 29일(병인).

137 『조선일보』1928. 9. 27.(목) 2면, 「오백 년간 변천 만흔 종로 종각[3]」.

138 E. Burton Holmes, *Burton Holmes Travelogues vol. 10—Seoul, The Capital of Korea*, New York: The McClure Company, 1908, pp. 31–33.

139 金永上, 앞의 논문(1979), pp. 132–133. 다만 이 논문에서 근거자료로 1908년 2월 14일자의 「統監府令 제5호」를 들고 있으나, 이 법령에서는 통감부가 한국표준시를 의용한다는 구절 이외에 보신각종이나 오표 관련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宋炳基 編著, 『統監府法令資料集』中(大韓民國 國會圖書館, 1973), p. 16]. 이는 한국표준시에 관한 1908년 2월 7일자 고종의 「勅令 제5호」에서도 마찬가지이다[宋炳基 등 編著,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Ⅵ(大韓民國 國會圖書館, 1971), p. 262].

면서, 소리로써 백성을 교화하되 그 소리에 군주의 소리와 부처의 소리를 함께 담으려고 염원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현재의 보신각종에 보이는 인위적 훼손의 흔적을 본격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보신각종의 현상을 관찰한 다음, 이를 보신각종을 전후하여 조성한 홍천사종(1462) 및 봉선사종(1469)과 비교하여, 범종의 구성 요소 가운데 무엇이 훼손되었는가를 추적하였다. 훼손된 구성 요소는 다시 불교적 요소—견대(肩帶)의 복련(伏蓮), 보살입상(菩薩立像) 4구, 최항(崔恒)이 지은 종명(鐘銘)—와, 비(非)불교적 요소—주종(鑄鐘) 관계자 가운데 도제조(都提調) 명단—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원각사종에서 불교 문자와 상징이 지워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불교지우기’라 명명하고 그 이념적 요인으로 동시대 유자(儒者)들의 맹렬한 벽불론(闢佛論)을 주목하였으며, 후자는 정치적 요인으로 연산군의 갑자사화를 지목하였다. 그리고 보신각종의 인위적 훼손에는 이념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시기를 갑자사화(1504)부터 연산군 퇴위까지로 좁혀 보았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범종으로서의 원각사종이 조종으로서의 보신각종으로 변신해 간 역사를 추적하고, 그 변신의 의미를 종소리의 상징성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였다. 1468년에 예불(禮佛)을 위한 범종으로 조성된 원각사종은 1504년 원각사 폐사와 함께 타종이 중지되었다. 그리고 1536년 원각사지에서 남대문으로 옮겨졌으며, 1594년 11월 무렵부터 임진왜란의 병화로 파괴된 종루종을 대신하여 조종으로 재탄생하였다. 그 직후인 1597년 명나라 군대가 주둔하던 명동 고개로 이전되었다가, 1619년 다시 종루로 옮겨졌으며, 이때부터 1908년 일제가 타종을 중단시킬 때까지 300여 년 동안 매일 새벽[파루(罷漏)]과 저녁[인정(人定)]마다 규칙적으로 타종되었다. 1468년부터 1908년까지의 440년 가운데, 애초의 조성 목적에 맞게 범종[부처의 소리]으로 타종된 기간은 1468년~1504년 사이의 36년으로 전체의 1/10에도 못 미친다. 이보다 훨씬 긴 90년(1504년~1594년) 동안은 침묵 속에 방치되었으며, 대부분의 기간(1594년~1908년의 314년) 동안은 조종[임금의 소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원각사종[범종]이 보신각종[조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집권세력에 의해 단행된 ‘불교지우기’는, 조선 전시기에 걸쳐 불교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요컨대, 보신각종에서 확인되는 인위적 훼손이야말로 조선시대 한국 사회의 탈불교화를 역설한다 하겠다.

참고문헌

【1차 문헌 및 사료】

『遣閑雜錄』(『大東野乘』所收)

『宮闕誌』

『金石清玩』(10첩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大東金石書』(일본 天理大學 도서관 소장)

『大東地志』

『東京雜記』

『東國文獻備考』(『增補文獻備考』)

『東國輿地備考』

『東文選』

『東亞日報』

『梅月堂詩集』

『保閑齋集』

『承政院日記』

『新增東國輿地勝覽』

『陽村集』

『五山說林草藁』(『大東野乘』所收)

『五洲衍文長箋散稿』

『慵齋叢話』

『榆岾寺本末寺誌』

『凝川日錄』(『大東野乘』所收).

『朝鮮古蹟圖譜』

『朝鮮金石總覽』下(朝鮮總督府, 1919)

『朝鮮佛教通史』

『朝鮮王朝實錄』

『朝鮮日報』

『朝野會通』

『春亭集』

『太虛亭集』

『統監府法令資料集』(宋炳基 編著, 大韓民國 國會圖書館, 1973)

『漢京識略』

『韓國金石文大系』(趙東元, 익산: 圓光大學校 出版局, 1988)

『韓國日報』

『海東金石苑』(劉承幹 輯, 1922; 亞細亞文化社 영인, 1976)

『休澗野談』

【국문】

강호선, 「개경과 한양의 사찰—도성사찰의 역할과 의미—」, 『역사와 현실』 125, 2022.

國立文化財研究所 미술공예실, 『韓國의 梵鐘』, 1996.

국립중앙박물관, 『楡岾寺梵鐘』,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 2014.

金永上, 『雲從街鐘樓考』, 『鄉土서울』 36, 1979.

김일권, 「한양도성의 중심점 원각사의 십층탑과 대중에 대한 土中 공간론과 佛天의 시공간학 코스몰로지」, 『민속학연구』 49, 2021.

곽동해 · 엄영하, 「朝鮮朝 梵鐘의 菩薩에 대한 考察—立像菩薩을 中心으로—」, 『梵鐘』 13, 1990.

權赫男 · 俞惠仙, 「普信閣鐘의 非破壞調査」, 『Conservation Science in Museum』 6, 2005.

남동신, 「金石清玩」研究, 『한국중세사연구』 34, 2012.

_____, 「세조의 원각사13층석탑 건립과 그 의미체계」, 『美術資料』 101, 2022.

남동신 외, 『대동금석서 연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0.

南辰阿, 「朝鮮 初期 王室發願 梵鐘 研究」, 영남대학교 미학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_____, 「조선 초기 왕실발원 범종 연구」, 『불교미술사학』 5, 통도사성보박물관, 2007.

孟仁在, 『普信閣前 鐘路네거리 鐘樓址調査報告書』, 文化財管理局, 1973.

문화재청, 『범종/형 · 색 · 감』(2009년 중요문화재 범종 기록화사업 결과보고서), 2009.

반재식 편저, 『보신각』(보신각 건립 6백년 記念誌), 서울: 종로문화원, 1998.

普信閣鐘 重鑄委員會, 『普信閣鐘重鑄報告書』, 서울: 서울신문社, 1986.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特別市史』(古蹟篇), 1964.

廉永夏, 「韓國梵鐘에 關한 研究(第5號 普信閣鐘)」, 『梵鐘』 4, 1981.

_____, 「韓國梵鐘에 關한 研究」, 『梵鐘』 11, 1988.

_____, 『韓國의 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1.

이광배, 「朝鮮前期(15~16世紀) 梵鐘 研究」,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이봉춘,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 서울: 민족사, 2015.

李相佰, 「圓覺寺始末考」, 『鄉土서울』 2, 1958.

李重華, 「鐘樓と普信閣鐘に就て」, 『朝鮮』 199, 1931.

_____, 「鐘樓と普信閣鐘に就て(二)」, 『朝鮮』 200, 1931.

_____, 「鐘樓와 普信閣鐘에 對하야」, 『震檀學報』 6, 1936.

李浩官, 「朝鮮王朝時代梵鐘」, 『考古美術』 138 · 139, 1978.

정연식, 「조선시대의 시간과 일상생활—시간의 얹과 알림—」, 『역사와 현실』 37, 2000.

鄭永鎬, 「朝鮮前期 梵鐘考」, 『東洋學』1, 1971.

조원교, 〈서울 옛 보신각종에 대하여〉(국립중앙박물관 제578회 큐레이터와의 대화), 2018. 2. 7.

周昞美, 「朝鮮前期 金屬工藝의 對中交涉」, 『조선 전기 미술의 대외교섭』(전국미술사학회 발표요지문), 한국미술사학회, 2004.

_____, 「조선 전반기 금속공예의 대중교섭」, 한국미술사학회 편, 『조선 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 서울: 도서출판 예경, 2006.

_____, 「조선전기(朝鮮前期) 왕실발원종(王室發願鐘)의 연구(研究)」, 『東洋學』42, 2007.

직지사성보박물관, 『한국의 범종 탁본전』, 2003.

靑吾, 「京城五大鍾辨正錄」, 『別乾坤』23, 1929.

崔應天, 「한국 범종의 특성과 변천」, 『聖德大王神鍾: 綜合論考集』, 국립경주박물관, 1999.

_____, 「한국 범종의 특성과 변천」, 『하늘꽃으로 내리는 깨달음의 소리—韓國의 梵鐘 拓本展』, 직지성보박물관, 2003.

_____, 『한국의 범종』, 서울: 미진사, 2022.

湖岩, 「普信閣」, 『朝鮮日報』1935. 7. 23, 1935.

洪思俊, 「朝鮮初葉의 鐘形과 銘文」, 『考古美術』138·139, 1978.

黃壽永, 「梵鐘」, 『서울特別市史(古蹟篇)』제4부 제4장,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편, 1964.

【중문·일문】

京城府, 『京城府史』, 京城: 朝鮮印刷, 1936.

京城府公立普通學校敎員會, 『郷土資料 京城五百年』, 1926.

高橋亨, 『李朝佛教』, 東京: 實文館, 1929.

關野貞, 『韓國建築調査報告』, 東京: 東京帝國大學工科大学, 1904.

藤井萬年, 「普信閣의 鐘의 由來」, 『朝鮮研究』3-5, 1930.

梅原末治, 「朝鮮鐘雜記」, 『朝鮮學報』7, 1955.

米田美代治·榎本龜次郎, 『朝鮮總督府博物館 復命書: 開城府開豐郡 古蹟遺物調査』, 1934.

濱田耕策, 「高麗開城의 演福寺鐘의 漢字銘文注解(前)」, 『朝鮮學報』251, 2019.

_____, 「高麗開城의 演福寺鐘의 漢字銘文注解(後)」, 『朝鮮學報』252, 2019.

坪井良平, 『新訂梵鐘と古文化』, 東京: ビジネス教育出版社, 1933.

_____, 『朝鮮鐘』, 東京: 角川書店, 1974.

【영문】

Holmes, E. Burton, *Burton Holmes Travelogues vol. 10—Seoul, The Capital of Korea*, New York: The McClure Company, 1908.

【데이터베이스】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snu.ac.kr/>)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https://kabc.dongguk.edu/>)

한국고전번역원 (<https://www.itkc.or.kr/main.do>)

한국의 범종 CD 1, 2집(신나라뮤직, 1996)

e뮤지엄 (<http://www.emuseum.go.kr/main>)

大正新脩大藏經テキストデータベース(<https://21dzk.l.u-tokyo.ac.jp/SAT/index.html>)

劉俊文 總纂, 中國基本古籍庫,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Transforming the Wongaksa Bell[Buddhist Bell] to the Bosingak Bell[Court Bell]: An Example of the Debuddhismiza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Nam Dongsin *

The Bronze Bell of Wongaksa Temple, also known as the Bosingak Bell, was produced in 1468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 for dedication at Wongaksa Temple in the middle of the capital Hanyang in celebration of the tenth anniversary of his accession to the throne. It is currently heavily damaged and cannot be struck. This paper focuses on the man-made damage inflicted on the Bosingak Bell and explores when, why, and by whom the bell was damaged along with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is damage.

In the first section, the relevant literature is reviewed and the problems concerned, research perspective, and methodology are presented. The history of related theories is investigated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singak Bell and Wongaksa Bell. The perspective that Bosingak Bell and Wongaksa Bell are the same is introduced. My discussion will be developed from this perspective.

In the second section, the background to King Sejo's construction of Wongaksa Bell is examined. Specifically, the bells commissioned by the kings of the early Joseon era are divided into court bells (*jojong*) and Buddhist bells (*beomjong*). They total four court bells and three Buddhist bells. The former are the Jongnu Tower Bell commissioned by King Taejo, Donhwamun Gate Bell by King Taejong, Gwanghwamun Gate Bell by King Sejong, and Sajeongjeon Hall Bell by King Sejo. The latter are the bells of Yongmunsa, Heungcheonsa (or Jeongneungsa) and Wongaksa Temples, all of which were made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 Sejo also made Wongaksa Bell and gave it the meaning that the monarch and the Buddha both wish to enlighten the people through the sound of the bells.

In the third section, traces of the man-made damage done to Bosingak Bell are closely examined. By observing the current condition of Bosingak Bell and comparing it with the contemporaneous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eungcheongsa Bell (1462) and Bongseonsa Bell (1469), the components of Bosingak Bell that were damaged can be identified. The damaged parts are again divided into Buddhist elements and non-Buddhist elements. The former includes the reversed lotus petals on the shoulder band, four standing bodhisattvas, and the inscription of the bell composed by Choe Hang. The latter includes lists of chief supervisors (*dojejo*). I describe the phenomenon of deliberately damaging Buddhist elements on bells as “effacement of Buddhism,” meaning Buddhist images and inscriptions are eliminated, and I note the prevailing rejection of Buddhism theory among Neo-Confucianists as its ideological root. The erasure of non-Buddhist images was probably caused by political conflicts such as Yeonsangun’s purge in 1504. Since both ideological and political factors played a role in the changes made to Bosingak Bell, the damage was possibly done between the Purge of 1504 and the abdication of Yeonsangun in 1506.

Chapter four traces the transformation of the Buddhist bell of Wongaksa Temple into the Bosingak court bell. Finally completed in 1468, the Wongaksa Bell only served its role as a Buddhist bell at related services for a relatively brief period of 36 years (until 1504). Wongaksa Temple was closed down and the bell lost its Buddhist function. In 1536, it was moved from Wongaksa Temple to Namdaemun Gate, where it remained silent for the next 90 years until it was struck again in November 1594. However, after the destruction of the Jongnu Bell in a fir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1592–1598), the Buddhist bell from Wongaksa Temple became a court bell. The Wongaksa Temple bell was relocated to Jongnu Tower in 1619, traveling through Myeongdong Pass. From then on, as the official Jongnu Bell (later renamed Bosingak Bell), it was regularly rung at dawn and dusk every day for nearly 300 years until 1908, when Japanese authorities halted the ritual. The transformation of the Wongaksa Bell (a Buddhist bell) to Bosingak Bell (a court bell) means that the voice of the Buddha was changed to the voice of the king.

The concept of “effacement of Buddhism,” evident in the transformation of Wongaksa Bell to Bosingak Bell, was practiced widely on almost every manifestation of Buddhism throughout the Joseon period. In short, the damage evident in Bosingak Bell underscores the debuddhismization in Korean society during the Joseon Dynasty.

Keywords: King Sejo, Buddhist Bell, Court Bell, Wongaksa Bell, Bosingak Bell, effacement of Buddhism, Debuddhismization, rejection of Buddhism